

사료로 보는 애국가 짓기와 부르기의 역사

김 수 현*

국문초록

본 논문은 1890년대부터 발생한 ‘애국가 가사 짓기’와 ‘애국가 부르기’의 역사를 음악사적 사료를 통해서 고찰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목차를 구성하였는데,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는 1910년 이전의 역사, 둘째는 1910년 이후의 역사, 셋째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다룬 1910년 이전의 애국가 역사는 또 다시 1890년대 ‘애국가 가사 짓기’가 크게 일어난 시기와 1900년대로 ‘애국가 노래 부르기’가 크게 유행했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애국가〉라는 국가도 탄생하게 되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가 부르기가 태극기제양과 만세삼창을 동반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 강점으로 모든 ‘애국가 짓기’와 ‘노래 부르기’가 금지되고 애국가를 담은 모든 서적이 압수당한다.

두 번째로 다룬 1910년 이후의 역사는 다시 많은 애국창가집이 발행되고 독립운동 진영에 보급되어 애국가 가 애국창가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1910년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국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공식적인 의례에서 애국가를 자주 불렀지만 국내에서는 ‘애국가’를 짓거나 부르거나 모두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1920년대로 나뉜다.

세 번째로 다룬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는 다시 1919년, 1945년이 기점이 되어 전후 세 시기로 나누어진 다. ‘무궁화가’로 시작한 ‘동해물과 애국가’는 처음엔 다른 애국가들과 함께 쓰였으나 1919년 이후 대표곡이 되었다. 〈Auld Lang Syne〉의 곡조에 맞춰 부르던 ‘동해물과 애국가’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국가가 제정되기 전까지 안익태 곡조로 부르기로 하였다가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주제어] 애국가, 애국가 짓기, 애국가 부르기, 동해물과 애국가, 무궁화가, 역사사료, 항일가요, 독립운동, 안창호, 안익태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 |
| II. 1910년 이전 애국가 | V. 맺음말 |
| III. 1910년 이후 애국가 | |

*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 kshmusic@naver.com

I. 머리말

〈애국가〉¹⁾는 정부에서 한 번도 정식으로 국가로 채택하고 법률화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국가와 다를 것이 써 오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애국가〉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선 광복 후 70년이 넘게 작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작사자가 누구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애국가 곡이 불가리아 노래를 표절했다는 문제제기가 일어난 지도 50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작곡자인 안익태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애국가에 대한 연구는 가사적 측면과 작곡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가사적 측면으로 보면, ‘동해물과 애국가’의 작사자 논쟁이 가장 두드러졌다. 오랜 연구와 논쟁 속에서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설과 윤치호설로 압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창호 설의 주창자는 안용환이 대표적이고 윤치호설은 김연갑이 대표적이다.²⁾

작곡적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곡 자체가 가사에 잘 맞지 않고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다는 면에서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장사훈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1964년 안익태 생전에 빚어진 표절시비로 표절문제가 이유선에 의해 부상했지만 한동안 잠잠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익태를 영웅시한 김정래의 연구와 음악가로서 뛰어난 점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전정임과 허영한의 연구가 있었지만 안익태의 1938년 이후 행적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안익태의 친일 반민족행위가 송병욱, 이경분, 이해영의 연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과거 논란이 된 표절문제가 김정희의 연구로 다시 거론되었다.

이 때문에 반민족행위를 한 작곡자가 작곡한 〈애국가〉, 표절논란의 대상인 〈애국가〉를 우리 국민이 공식적 석상에서 계속 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³⁾ 이에 따라 최근 현행 〈애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국가(國歌)⁴⁾ 제정 움직임이 일부 학자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⁵⁾

1) 이처럼 애국가를 〈 〉로 표기할 때는 곡명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가사에 안익태가 작곡한 곡을 말한다. 반면 이 논문의 주제가 되는 애국가는 현행 〈애국가〉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 논문의 제목과 소제목에 ‘나라사랑의 노래’라고 쓰거나 ‘애국가류’ ‘애국가창가’ 등으로 쓰지 않고 보통명사 애국가로 쓴 이유는 애국가가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1890년대에 탄생한 수많은 애국가에는 〈애국가〉라는 곡명이 가장 많았고 〈무궁화가〉·〈독립가〉·〈국가〉·〈대한훈〉·〈정신가〉 등 다른 명칭도 있었다. 이러한 애국가가 1910년대에는 창가집에 담기면서 ‘애국가창가’라고도 했다. 그러던 수많은 애국가가 ‘동해물과’로 시작하는 하나의 가사로 고착화 되어 갔다. 이런 역사를 가진 애국가이기에 보통명사로도 쓰고 현재 국가 대용으로 쓰는 특정 곡의 명칭으로도 쓰게 되었다.

2) 안용환, 『안창호 애국가 작사』, 청미디어, 2016; 김연갑, 『애국가 작사자 연구』, 집문당, 1998.

3)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재, 1974; 이유선, 『한국악악백년사』, 중앙대학교출판부, 1976; 김정래, 『위대한 한국인 15 안익태』, 태극출판사, 1972; 전정임, 『안익태』, 시공사, 1998; 허영한, 「미주 한인학생회보를 통해 본 안익태의 미국 유학시절」, 『낭만음악』 40, 낭만음악사, 1998; 송병욱, 「안익태의 알려지지 않은 두 작품」·「안익태의 민족정체성 - 어느 음악가의 정당한 평가를 위하여」, 『객석』 265·266, 2006; 이경분,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휴머니스트, 2007; 이해영, 『안익태 케이스』, 삼인, 2019; 김정희 「안익태 〈애국가〉, 표절인가 아닌가?」, 『한국예술연구』 26, 2019.

4) 한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공식 노래를 말한다. 현재 국가(國歌)로 제정된 곡은 없고, 다만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가 국가로 준용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로 1902년 제작 반포된 〈대한제국애국가〉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서 제정한 국가였고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국가가 다시 제정되어야 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많은 논란만 쌓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 애국가(국가) 제정논의 확산을 위해서는 애국가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 그동안 짓고 불렀던 수많은 애국가 중에 현재에도 의미 있는 노래가 있는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애국가를 둘러싼 많은 논쟁과 함께 애국가의 역사를 밝히는 연구는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 1994년 노동은 「애국가 가사는 누가 언제 만들었나」에서 작사자 밝히기를 앞세웠지만 사실상 ‘동해물과 애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애국가운동’으로 시작된 애국가의 역사와 어떤 곡조의 노래들이 있었는지를 밝혔다. 이어 1999년 이명화는 더 많은 사료들을 제시하며 애국가의 초기 형태인 ‘무궁화가’⁵⁾에서부터 애국가 금지 이후에 만주지역에서 되살아난 애국가와 상해 임시정부의 애국가, 미주 독립운동진영의 대한군인회에서 불려진 애국가 등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김도훈은 다시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과 관련해 새로 발굴한 자료를 통해 사료검토, 작사자 논쟁, 국가제정 시도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 임진택은 자칭 ‘동해물과 애국가’ 가사가 사장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성과 윤희갑의 증언을 직접 듣고 연구한 윤정경의 연구를 토대로 안창호설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이 가사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⁷⁾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현행 〈애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애국가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애국가가 가진 특수한 역사성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대안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였다. 특히 ‘동해물과 애국가’를 포함하여 수없이 불려지고 간직해온 애국가를 ‘독립운동가’ ‘항일음악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 근대 역사 속에서 불려진 애국가의 발생과 변천, 대표적인 애국가로 정착된 ‘동해물과 애국가’⁸⁾의 역사, 그리고 그 가사에 곡을 붙인 안익태 작곡 〈애국가〉가 일반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의 역사를 분석해야 대안적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애국가〉는 단 한 곡조의 한 가사를 가진 곡이지만 이 한곡으로 공식화 되어가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역사가 내포돼 있다. 가사만을 가지고 보면 수많은 애국가 중에서 ‘동해물과 애국가’가 탄생하여 대표적인 애국가로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태극기를 지키듯이 애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애국가의 역사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애국가 제정 움직임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국가 운동’은 1890년대 열강의 침투와 간섭이 심해져 국운이 기울어 가자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나라

5) 2019년 8월에는 「안익태곡조 애국가 계속 불려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공청회가 열렸고 11월에는 ‘국가(國歌)만들기 시민 모임’ 주관으로 「안익태 애국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6) ‘무궁화 삼천리’로 시작하는 현행 〈애국가〉의 후렴과 같은 후렴을 가진 노래의 총칭이다. 예를 들어 〈無窮花歌一〉은 “성자신손”으로 시작되는 곡이고 〈無窮花歌二〉는 ‘동해물과 애국가’를 가리킨다.

7) 노동은,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4; 이명화,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실한사상연구』 10·11, 역사실학회, 1999; 김도훈,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윤정경,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시상과 도산 안창호(증보판)』, 홍사단, 2013; 임진택,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8) ‘동해물과 애국가’라는 용어는 그동안 쓰인 바 없지만 명칭과 지칭에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어떤 곡조(Auld Lang Syne), 안익태작곡의 곡)로 불렸거나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현행 애국가와 가사가 같은 노래를 지칭해서 쓰겠다.

를 지켜내자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일어났다. 이 때 수많은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중에 일찍이 현행 〈애국가〉와 같은 후렴을 가진 ‘무궁화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00년대 을사늑약과 군대강제해산, 황제강제양위, 통감부설치 등으로 한국의 식민화가 강제되는 과정 속에서도 ‘애국가 짓기’와 ‘애국가 부르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병탄으로 모든 애국가 부르기와 가르치기는 금지되고 애국가를 담은 책들은 압수당했다. 그러자 만주, 연해주, 중국, 미국 등 국외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애국가 보급에 힘을 쏟았다.

1910년대에는 ‘애국가’보다는 ‘애국창가’라는 더 큰 범주에서 민족학교나 독립운동 조직 등에서 부를 노래들을 모아 애국창가집을 발간하고, 애국가를 보급해 나갔다. 그 속에서 애국창가는 항일가요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다. 1910년대에 많은 애국창가가 나왔지만 조직과 단체, 민족학교의 의식행사에서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는 절차가 관례화 되면서 점차 한 곡으로 통일되어 정착되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국외에서는 3.1절 기념식이 가장 중요한 행사로 치러졌고 어디에서나 매년 거행됐기 때문에 더욱더 애국가가 공식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애국가를 짓거나 부르거나 하는 행위가 발각되어 금지·검거·해직·체포·구속으로 이어진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국가를 짓거나 부르는 행위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 애국가라고 하면 주로 ‘동해물과 애국가’였다. 물론 곡조는 〈Auld Lang Syne〉이라는 남의 나라 노래를 차용했지만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1931년 만주침략,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에 의해 쫓겨다니고 저항하고 죽어가면서도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애국가를 지켜냈다.

곡조 면에서 보면, 안익태가 작곡한 현행 〈애국가〉 곡을 수용하게 된 것은 해방 직후였다. 미국에 유학하여 태극기조차 처음 보았던 안익태는 안창호가 가사를 지었다고 들은 ‘동해물과 애국가’를 남의 나라 이별가 곡조에 얹어서 부르는 것을 처음 듣고 작곡의지가 일어나 1935년 작곡했다고 한다. 이 곡은 1936년 미국에서 악보로 발행되었고 1941년 대한민국민회의 요청으로 임시정부에서 애국가 곡조로 인준한 일도 있었다. 1943년 발행된 『광복군가집』에도 실렸다. 그러나 이 곡조는 1945년 해방이 된 후에서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시급히 ‘애국가현상모집’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좌우대립, 한국전쟁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해방 직후 남의 곡조로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러워진 상황이 되고 뚜렷한 대안이 없자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도 없이 임시로 택한 안익태의 곡이 그대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쓰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밝히기 위해 역사주의적 접근과 대표적인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189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1919년 이후에서 1945년까지로 나누어 애국가가 제정되는 일반적 양상을 살피고, 별도로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1890년대부터 해방 직후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⁹⁾

9)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료는 기존연구에서 대부분 검토되었지만 시기구분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시대적 변천과 흐름을 이해 할 수 있게 하였다. 사료 중 신문 사료 중 악보가 아닌 기사 같은 경우는 지면관계로 원문 그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하여 목록화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애국가의 역사를 1910년을 기점으로 나눈 이유는 일제강점 이전과 이후의 애국가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도로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를 다룬 이유는 현행 애국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논쟁 속에서 시대를 넘나들면서 제기되는 사료들에서 나타나는 혼동을 줄이고 현행 〈애국가〉 가사로 정착된 ‘동해물과 애국가’만 가지고도 역사적 변천을 탐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1910년 이전 애국가

1. 애국가 짓기 운동과 국가 제정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생겨나면서 ‘애국가 운동’이 일어났다.¹⁰⁾ ‘애국가 운동’이란 애국가 가사 짓기·가락 짓기 운동, 애국가 부르기 운동, 국가로서 애국가를 제정하는 운동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1896년 최초의 〈애국가〉가 『독립신문』에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3~4년간 수 십 종의 애국가 가사가 실린다. 이러한 일련의 애국가운동 행위들은 이 시기 『독립신문』이나 고종의 ‘대한제국선포’의 지향점으로 봤을 때 청(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독립을 지향했을 것이다. 당시 ‘애국가운동’의 성향은 대한제국의 ‘국가(國歌) 제정’을 촉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대한제국애국가〉를 탄생시켰다.

(1) 1890년대 애국가 짓기 운동

1890년대 ‘애국가 짓기’ 운동의 분위기는 신문에 게재된 수많은 애국가 가사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주로 〈애국가〉로 제목을 달았지만 제목이 없이 ‘글’이라고 하거나 〈독립가〉·〈독립문가〉·〈애민가〉·〈동심가〉·〈성몽가〉·〈경축가〉·〈연설노래〉·〈교가〉·〈새군가〉라는 제목의 노래도 애국계몽, 독립부강을 노래한 애국가에 속한다. 심지어는 ‘시위대 병정 탄식하는 노래’조차도 처음에는 ‘불쌍하다’로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자주독립 굳게하세’로 끝내고 있다. 1890년대 『독립신문』에 게재된 애국가를 두 소절 정도로 부를 만한 분량의 2행만 원문체를 그대로 살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¹⁾

10) 이명화는 앞의 논문(1999) 638쪽에서 독립협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국민의례운동’의 제안에 대한 근거로 『독립신문』, 1896년 9월 22일 기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정식 제안을 한 날짜이고 애국가를 불렀다거나 국기를 쫓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기사는 이전에도 여러 개 발견된다(1896년 6월 2일자; 7월 2일자; 9월 1일자; 9월 3일자; 9월 5일자).

11) 신문자료 전부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에서 찾은 것임을 밝힌다. 이미 노동은의 앞의 논문(1994) 20쪽에 『독립신문』에 게재된 32개의 애국가 곡을 지은이, 직업, 주소 게재일자 권 호 등으로 목록을 정리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곡을 더 넣고 1절 가사를 첨가시켜 만들었다. 이러한 목록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사료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논문이 가지는 성격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1896~1899 독립신문에 게재된 애국가 목록

	게재일	제목	1절 가사	지은이 부른이	사는 곳, 부른 곳, 직업, 지위
1	1896. 4. 11.	글	대조선국 건양원년 즉주독립 깃버호세 턴디간에 사름되야 진흥보국 데일이니	최돈성	서울 순청골
2	1896. 5. 9.	애국하는 노래	아세아에 대조선이 즉주독립 분명호다 익아예야 외국호세 나라위히 죽어보세	니필균	학부주사
3	1896. 5. 19.	애국가	봉축호세 봉축호세 아국태평 봉축호세 즐겁도다 즐겁도다 독립즉주 즐겁도다	턴경택	인천 제물포
4	1896. 5. 26.	동심가	잠을끼세 잠을끼세 스천년이 꿈속이라 만국이 회동호야 스희가 일가로다	리중원	양주
5	1896. 6. 2.	글	초당에 김히든잠 뉘라서 썩랴노고 구텐을 브라보니 미인옥 어딴미요	김교익	금강
6	1896. 6. 2.	노릭	부러호세 부러호세 부국강병 부러호세 우리만민 함역호여 명부를 도와주세	허일	남서 순검
7	1896. 7. 4.	애국가	턴디구상 룡육중에 즉주독립 분명호다 경향원근 무론호고 꿈을씨여 진보호세	한명원	누동
8	1896. 7. 7.	애국가	대조선국 인민들이 이스위한 외국호세 충성으로 남군섬겨 평안시절 행복호세	리용우	묘동
9	1896. 7. 16.	경무학도들 노래	힘써보세 힘써보세 아국경무 잘히보세 학도로 공부호여 명부를 도와보세	경무학도들	경무학교
10	1896. 7. 16.	독립문가	우리조선 신민들은 독립가를 드러보오 병즈지슈 설치호고 자주독립 조흥시고	김석하	양성
11	1896. 7. 18.	애국가	즐겁도다 즐겁도다 즉주독립 즐겁도다 동포형제 합심호여 부국강병 호여보세	윤태성	북서 순검
12	1896. 7. 23.	애국가	독립공원 굳게짓고 태극기를 높피달세 하느님의 성심기도 국티평과 민안락을	달성회당 예수교인	대조선 달성회당
13	1896. 8. 1.	애국가	대조선국 인민들은 독립신문 자세보오 방즈흠을 닉브리고 쏜들이나 어서께오	박기림	남동
14	1896. 8. 18.	애민가	우리동국 사름들이 익민가를 드러보오 턴부지직 동포되여 호싱지덕 일반이라	송천사립 학원들	송천사립학교
15	1896. 8. 20.	자주독립가	우리나라 독립되니 팔괘기가 기운나네 팔괘기를 높이다니 세계상에 데일일세	문경호	정동 배재학당
16	1896. 9. 1.	애국가	인의동방에 꽃치피니 건양원년 초춘일세 꽃피었네 꽃피었네 만민화락 꽃피었네	최병희	
17	1896. 9. 3.	성절송축가	마세만세 만만세 천추성절 만만세 독립교호 만만세 문명세계 만만세	신영택	경상도 봉화

	게재일	제목	1절 가사	지은이 부른이	사는 곳, 부른 곳, 직업, 지위
18	1896. 9. 5.	애국가	광활한 텃기간의 우리인성 삼겨나서 조선국에 심장하여 의지식지 하여시니	김종섭	평양학당
19	1896. 9. 8.	애국독립가	대조선국 학도들이 독립가를 들어보오 일심으로 독립위회 합심우즈 닛지마오	최영구	배재학당 학도
20	1896. 9. 10.	애국가	우리나라 대조선은 조주독립 분명하다 조주독립 되야시면 문명기화 도홀시고	리영언	평양 보통문안
21	1896. 9. 15.	애국가	잠끼보세 잠끼보세 대조선국 인민들이 김히든잠 번트끼여 조주독립 도와주세	김철영	농상공부 기사
22	1898. 9. 17.	경축가	남녀노쇼 인민들은 경축가를 불너보세 우리모도 일심으로 성상폐하 경축하세	김기범	인향운동 예수교인
23	1896. 10. 31.	독립가	턴디만물 창조후에 오쥬구역 텃팅이라 아시아쥬 동양쥬에 대조선국 분명하다	최병헌	농상공부주사
24	1897. 1. 28.	애국가	오화우리 군인들이 이말습 들어보오 천디디간 만물쥬에 사름이 웃듬일세	인응선	강원도 김화군
25	1897. 6. 10.	군가	대군쥬 폐하께서 조주독립 하옵 신후 려민동락 하압시니 길갑도다 만물이라	병정들	시위대
26	1897. 9.14.	성모가	잠을씩오 잠을씩오 그만하면 실컷짓지 김히든잠 여서씩오 무슨잠을 이리자나	문경호	배재학당 학도
27	1898. 6.11.	연설노래	즈미잇고 즈미잇네 독립협회 연설이여 오백년릭 업턴연설 오늘이야 처음드네	리치웅	전주
28	1897. 8. 17.	무궁화노래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턴이 도으샤 님군과 빅성이 혼 ㄹ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 하여보세	윤치호	대조선 개국 505회 기념식에서
29	1898. 2. 5.	탄식하노리	불상하다 불상하다 시위대병명 불상하다 외국인의 절제밧어 풍한서습 불피하고	병정	시위대
30	1898. 10. 18.	부인회 애국가	三千里 넓은강토 二千万쥬 만흔동포 순성학교 찬양회에 애국가를 드려보오	부인회 회원	찬양회부인회
31	1998. 11. 1.	새군가1	어화우리 군인들이 이말습 들어보쇼 나느쥬테 나느쥬테 혁구유신 나느쥬테	윤철규	시위2대대장
32	1898. 11. 21.	새군가2	어화우리 군인들이 충군위국 하여보세 일월갓흔 우리성군 문명기화 심쓰신다	윤철규	시위2대대장
33	1999. 6.16.	교가(校歌)	어질세라 어질세라 우리님군 어질세라 넛늘페단 혁신하여 문명지치 독립일세	졸업생	경성학당
34	1899. 6. 29.	무궁화노리	성조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슈려 동반도논 우리 본국일세	배재학당 학도	배재학당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신문』에 게재된 애국가에는 다양한 사람이 지었다. 시형은 4.4조가 대부분이며 ‘자주독립’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게재된 ‘애국가’류가 다 불려진 노래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노래를 불렀다면, 당시 유행했던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yne〉에 가장 많이 얹어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 곡조는 4·4·2·4이거나 4·4·3·3 또는 3·5·3·4의 자구(字句)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 맞지만 가사 전체가 4·4조로 된 경우는 노래 부르기 불편하다. 말하자면 의외로 다른 서양 곡조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그러한 예는 애국가라는 제목은 아니지만 다른 애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896년 독립관 주춧돌 놓는 예식을 독립공원에서 시행할 때 배재학당 학도들이 불렀다는 세 가지 노래가 있는데, 〈조선가〉·〈독립가〉·〈진보가〉이다.¹²⁾ 〈조선가〉는 “내나라를 위해 상주의 밍니다 나라도야”로 되어 있어서 〈God save the Queen〉에 맞는 자구를 가졌고 〈독립가〉는 앞은 4·4조이지만 후렴이 “깃분날 깃분날 우리나라 독립하날”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찬송가 〈O Happy Day〉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¹³⁾

전체가 4·4조인 가사를 가진 것은 찬송가보다는 민요에 맞춰 부르는 게 훨씬 나았을 듯하지만 ‘애국가 운동’ 자체가 문명개화라는 계몽운동이었고, 곡조 자체의 지향도 서구식에 맞춰야 할 것처럼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민요에 맞춰 불렀어도 그것을 어떤 민요에 맞춰 불렀다는 증거나 남겨진 당시의 민요악보 자료가 없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이 때 지어진 수많은 애국가 중에서 일부는 가사 그대로 또는 개사되어 불리거나, 당시 흔히 쓴 문구들을 이용해서 만든 노래들이 1900년대와 1910년대 항일운동의 노정에서 다시 활발하게 불렀다는 점이다. 이는 1900년대의 찬미가와 1910년대의 애국창가를 실어 놓은 창가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1902년 제정된 국가 〈대한제국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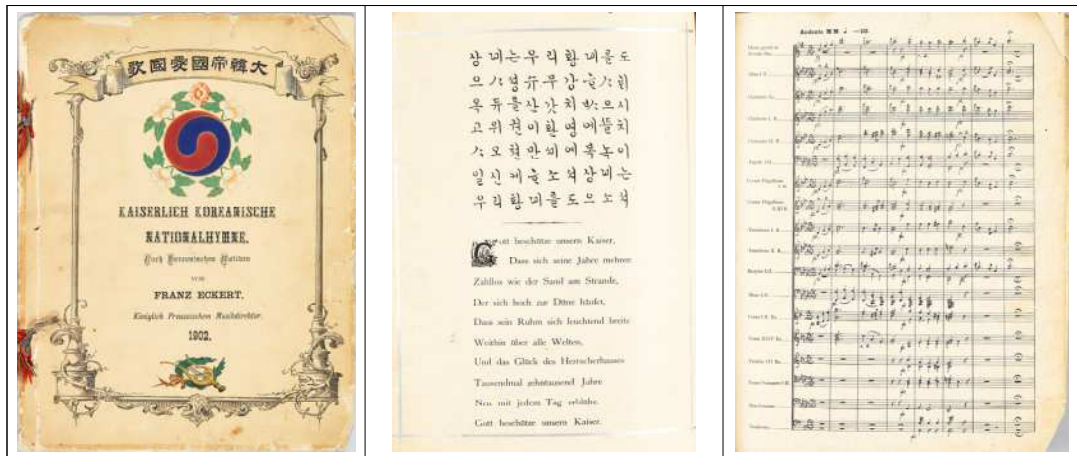
1890년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애국가 짓기’가 붐처럼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애국가 제정’ 준비가 시작되었다. 황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은 1900년에 서양식 군악대를 만들고 독일음악가 프란츠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를 초빙하여 군악대를 지도하게 하고 국가를 짓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902년 〈대한제국애국가〉가 탄생했고 우리나라의 첫 국가가 되었다.¹⁴⁾ 동판으로 인쇄하여 50여개 나라와 전국에 배포한 『대한제국애국가』 악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國歌)를 만들어 1902년 8월 15일에 배포한 국가 공식 문서나 다름없다.¹⁵⁾

12) 『독립신문』, 1896년 11월 24일자 기사에 배재학도들이 불렀다는 정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가사 전단지가 2013년에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장 이현표씨에 의해 독일에서 발견·소개된 바 있다.

13) 노동은, 『항일음악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 46쪽. 이 책에 실린 〈공립협회창립기념일〉, 290쪽 〈제국지리〉, 328쪽 〈환영가〉, 522쪽 〈3.1절 기념가〉가 그 예이다. 해설에서 이 곡조는 에드워드 F. 림볼트가 1854년에 작곡한 것이라고 하였다.

14) 장사훈, 앞의 책, 251~265쪽에는 〈대한제국애국가〉의 제작 경위, 제작자, 제작시기, 악보 내용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악보도 실려 있어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여기 제시된 『대한제국애국가』 악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의 이미지임을 밝힌다.



대한제국애국가(1902. 에케르트 작곡)의 표지와 가사 및 악보 부분

고급 양장지로 인쇄된 악보의 표지 맨 위에는 ‘大韓帝國愛國歌’ 제목 아래 태극을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¹⁶⁾ 내지는 발문 1쪽, 악보 없이 가사만 쓰인 1쪽, 관악기 총보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 가사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전체 63자가 9글자씩 7단으로 쓰여 있고 아래 독일어로 해석되어 있다. 문맥이 통하게 띄어쓰기 해서 보면, “상테(上帝)는 우리 황테(皇帝)를 도오스/성수무강(聖壽無疆)호스/히옥듀(海屋籌)를 산(山)갓치 박으시고/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쓸치사/오 천만세(於千萬歲)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호소서/상테(上帝)는 우리 황테(皇帝)를 도오소서”이다. 영국국가 <God Save the Queen>의 가사를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악보는 3/4박자, 전체 34마디로 피콜로·플룻·오보에·클라리넷·바순·프리젤호른·호른·튜바·트롬본·팀파니 등으로 연주할 수 있는 관악기 총보이다.

초기 <대한제국애국가> 연구자들¹⁸⁾은 이 곡이 아악(궁중음악)풍으로 어려운 가사와 곡조 때문에 일반사람들에게 보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대한제국애국가>의 가사는 고종의 밀사였던 험버트(Homer Hulbert, 1863~1949)가 채보한 한국 민요의 멜로디와 매우 흡사하고, 그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에케르트의 창작곡이 아니라 편곡이며 아악풍이 아니라 민요풍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실제로 3/4

16) 김시덕, 「북간도 명동학교 막새기와의 꽃문양에 나타난 민족의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2014, 129~130쪽. 김시덕은 이런 형상에 대해 대한제국이 애초에 이화문이 아니라 태극문을 상징화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악보는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 태극기, 국화 무궁화, 그리고 국가 대한제국애국가가 다 있는 셈이 된다.

17) 지금까지 알려진 <대한제국애국가>의 악보는 국가등록문화재 제729호(지정: 2020. 10. 15.)와 동일한 형태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원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대한제국애국가>악보는 가사가 뒷장에 배치되어 있고 한글가사가 아닌 독일어로 한국어 발음이 적혀 있으며 실로 묶여있지 않은 채 제본된 일본의 악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8) 남궁요열, 『개화기의 한국음악 - 프란츠 에케르트를 중심으로』, 세광음악출판사, 1987; 최장언, 「대한제국 애국가와 프란츠 에케르트」, 『음악저널』, 2010, 1월호, 81쪽; 민경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대한제국애국가>를 생각하며」, 『한국음악평론』 V, 한국음악평론가협의회, 2010; 「대한제국애국가와 그 변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학회 학술발표집』 10, 한국음악학회, 2010.

19) 이경분·헤르만 고체프스키,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애국가의 작곡가인가? - 대한제국애국가에 대한 새로운 고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2, 11월호.

박자 대신 굿거리장단으로 약간 빠르고 경쾌하게 불려도 무난한 곡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 곡을 악보대로 서양관악기로만 연주하지 않고 국악관현악으로 또는 대풍류 편성으로 연주한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 날 것이다.

1902년 제정 반포된 후 <대한제국애국가>는 국경일, 경축일, 황실의식 등 국가의식과 외교 행사에서 주요 레퍼토리로 연주됐다. 『황성신문』(1904.5.13.) ‘國歌調音’ 기사에 의하면, 1904년에는 각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한제국애국가>는 비록 외국인에 의해서 작곡되었으나 한국정서를 반영하려했던 곡이다. 곡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국가 제정 운동’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 애국가는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데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서 국가 제정의 경험을 갖게 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황제 강제 양위, 군대해산과 더불어 군악대는 폐지됐고, 1910년 강제합병 직후 <대한제국애국가>는 금지곡이 됐다. 금지곡이 되었지만 국외의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이 곡을 창가집에 실었다. 물론 제목을 달리하고 가사도 ‘황제’ ‘성수무강’ 등을 ‘대한’ ‘독립부강’ 등으로 바꾸고 곡조도 약간 변형했다. 만주지역 『광성학교 최신창가집』(1914)의 <국가>, 하와이 호놀룰루 『애국창가』(1916)의 <황실가>가 그 예이다.

2. 1900년대 애국가 부르기

『독립신문』 폐간 이후인 1900년대에도 ‘애국가 운동’은 계속되었다. 다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공립신보』 등의 기사를 보면, 1890년대에 비해 애국가 가사가 게재되는 경우보다는 애국가를 불렀다는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이 기념식이나, 학교 방학식, 운동회 등에서 일상화 되어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애국가 관련 기사는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에 130건 정도 찾아 지는데, 그 중에는 지금까지 애국가 연구에서 개별기사로 소개된 적도 많지만 1900년대 애국가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기 위해 목록화 해 보았다. 다만 지면상 반복되거나 비슷한 기사를 생략하고 60여건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1900년대 ‘애국가’ 관련 신문기사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02.12.04.	황성신문	進宴盛儀	외진연식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애국가 를 송축함.
1903.03.07.	황성신문	慶節頌祝	천추경절에 각학교에서 학도가 애국가 로, 군인들은 군가로 송축 .
1903.11.06.	황성신문	慶節頌祝	기원절에 각학교 학도 애국가 를 제창, 대안문 앞에서 만세 부름.
1904.05.13.	황성신문	國歌調音	학부에서 각 학교 애국가 를 정리하기 위해 각 학교에 신칙, 군악대에서 조음한 국가 (대한제국애국가) 효방을 명함.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으소서’

20)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05.05.24.	황성신문	日人表情	기독교청년회에서 운동회를 열고 애국가 부름
1906.05.12.	황성신문	盛況格談	은진 강경포 진명학교에서 운동회 때 학생들의 애국가 가 일대 청신 하였다고.
1906.05.15.	황성신문	養正創立式	양정의숙 창립식 때 교장 이동휘가 연설하고 소학교학도의 애국가 및 체조 등으로 여흥함.
1906.05.24.	황성신문	博校盛況	박명학교 대운동회 때 학도들이 애국가 와 개교가를 창화하고 대황제 폐하, 대한제국 만세 삼창 함.
1906.06.13.	황성신문	皇城基督教青年會 夏期放學禮式	황성기독교청년회 하기방학예식 때 애국가 를 연창 하고 황제폐하 황태자 만세 삼창함.
1906.06.13.	대한매일신보	俱樂部運動	대한체육구락부에서 운동회를 설행, 애국운동가 (가사 제시)를 창하고 만세삼창하였다.
1906.06.22.	대한매일신보	開校式盛況	여주군 여흥학교에서 개교식 때 국가 와 만세를 부르고 폐회함.
1906.07.20.	대한매일신보	興化學校	논설 - 민충정공(영환)이 세운 흥화학교에서는 애국의 뜻을 연하고 애국지가 를 창 해야 함을 강조.
1906.08.09.	대한매일신보	講所盛會	평양일신학교 내 야학과를 설립하고 대동강에서 애국가 와 민충정공 혈족가 를 상호 창화 하였다고
1907.01.23.	황성신문	夫人愛校	해주공립보통학교 학도가 신년경축식 때 애국가 를 제창하고 나서 羅召史가 일장연설을 했다고 함.
1907.03.20.	대한매일신보	國旗禮拜	균명학교에서 귀국한 안창호씨가 생도에게 권면 연설과 미국학교에서 애국사상으로 국기배례, 애국가 를 창 한다고 소개함.
1907.03.28.	대한매일신보	李氏設校	아산군 둔포사립보성학교 학생들이 경축회에서 애국가 를 창 함.
1907.04.05.	대한매일신보	近日明新女學校 에서	명신학교에서 일본애국가 를 창 하고 황제폐하만세 창하니 일본가곡에 한국왕족사 의치가 전몰이라고
1907.04.06.	황성신문	運歌一致	서울과 지방 각 관립·사립학교에서 경절운동시에 애국가 와 운동가 가 일치하지 못함으로 학부에서 일치한 가곡을 신제 반포한다고.
1907.04.23.	황성신문	愛國歌高蕩客歸	보성학교장 김중환씨가 탐동에서 풍류랑의 遊樂을 보고 온당치 못하다고 학도들에게 애국가 를 일제히 고창 케 함.
1907.05.01.	황성신문	南校運動	남양군내 공사립각학교가 춘기연합운동회를 설행, 홍익선씨는 애국충심을 연설한 후 애국가 를 제창 .
1907.05.11.	황성신문	女會開會	여자교육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학도들의 체조와 운동 및 애국가 와 본회 기념가 교수케 함.
1907.05.14.	황성신문	峴校春期運動	양양 현신학교 주최로 낙산사 아래 해변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16번째 순서로 애국가 , 포상에 奏樂.
1907.06.25.	황성신문	東一校運動盛況	의주사립 동일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애국가 제창 과 제국만세 산호하매 박수갈채 받음
1907.07.02.	대한매일신보	微塾盛況	희문의숙 일학년 진급시험을 마치고 진급식에 의숙장 장지연이 권면 연설, 학생들은 애국가 제창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07.07.18.	대한매일신보	女子教育의 視察	평양 여자교육연구회 개최, 황제폐하 만세 삼창 후 애국가로 축하, 안창호씨에게 박수갈채
1907.07.19.	대한매일신보	興校試驗 陰竹郡	음죽군 흥룡학교 진급식 때, 예식을 마친 후에 애국가를 제창.
1907.08.23.	황성신문	即位式順序	황제(순종)즉위 예식 순서에 주악(아국음악), 과 군악대의 애국가(대한제국애국가)연주가 있음,
1907.09.04.	대한매일신보	培校落成	개성군 배의학교 낙성연에서 학도 130여명이 출석하여 애국가를 제창한 후 내빈 연설이 있었음.
1907.09.07.	대한매일신보	平壤慶祝	만수성절에 평양서 태극기와 만국기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서 경축회를 개최, 학도는 애국가 창화.
1907.11.15.	대한매일신보	博覽設院	의주 기독교신사가 본향에 세계사진박람원을 설립, 유성기를 설치하고 애국가와 찬미가곡을 연주함.
1907.11.15.	황성신문	靑年會館上樑式	황성기독교청년회관 상량식에서 찬미, 기도, 이등통감과 미국총영사 연설(윤치호 통역), 애국가
1907.12.14.	대한매일신보	培校卒業	개성군 배의학교에서 일어야학 속성과 1회 졸업식 때 애국가로 개회하였다고
1908.01.26.	황성신문	金海朝陽	김해군 생림면 노상기가 땅 460평에 교사 15칸을 자비로 설립한 조양의숙 개교식 때 애국가를 창함.
1908.03.13.	대한매일신보	仁港慶祝	인천항에서 건원절에 가가호호 태극기를 높이 달고 학도는 애국가를 창하고
1908.03.28.	대한매일신보	大東學校 開校式 勸學歌	대동학교 개교식을 거행할 때 애국가를 제창하고 만세를 삼호, 권하기를 창함.
1908.03.31.	황성신문	砥校開學	지평군 계명학교 개학예식에서 교장 권면 연설 후 애국가를 창하고 만세 호함
1908.04.28.	황성신문	女會移接	여성교육회가 영성문 앞으로 회관을 이전하고 부설한 보화원 여학도들이 애국가를 창한 후
1908.05.01.	황성신문	尼山龍校	노성군 용정리 용산학교 개교식에서 애국가를 창하고, 밤에 야학도가 애국가와 도수체조로 여흥함.
1908.05.16.	황성신문	海東卒業式	사립 해동의숙에서 제1회졸업식에 군악으로 애국가를 창하여 성황.
1908.05.19.	대한매일신보	開進新校	지평군 개진학교 개교식에서 애국가를 고창하고 다과를 진찬하였는데 칭찬이 자자.
1908.05.20.	황성신문	新明盛況	보령군 신명학교 운동회에서 50여 생도가 대오를 정열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운동장에 나옴.
1908.05.27.	대한매일신보	신일학교기회식	평양 신일학교 낙성식과 개학식에 원근 유지신사와 대동학교 임원학도 등이 일시에 애국가를 부름
1908.06.10.	대한매일신보	농업계의 새복음	논설- 김해군 북외리에서 농무회를 조직, 무익한 잡기는 폐지하고 애국가를 새로 지어 병창함.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08.06.16.	황성신문	養校盛況	김천 양성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애국가를 창합 에 관광자가 수천인에 달하였다고 함.
1908.07.11.	대한매일신보	論學校用歌	논설-노래가 사람을 감동케 함이 깊으니 학생들이 애국가나 운동가를 불러 무익한 잡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아동들이 전국에 퍼트리는 효과가 있다고.
1908.08.21.	대한매일신보	李花校盛況	이화학교 제2회 졸업식 및 운동회를 선행, 애국가를 제창 하고 시상하고 만세 삼호함
1908.08.25.	대한매일신보	其志嘉尙	12세의 이수복은 태황제폐하(고종) 생신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애국가도와 만세도 불러 사람들이 칭찬
1908.08.29.	황성신문	漢城府民會	한성부민회사업소(회장 유길준)에서 경축연에 군악과 애국가를 번갈아 연주 한 후에 만세삼창
1908.09.22.	대한매일신보	大邱勞働學校	대구노동학교에서 역사지지 산술 체조 등을 국문으로 교수, 성절에는 애국가를 창 하고 경축식.
1908.10.07.	대한매일신보	太極開校盛況	아현의 사립 태극학교에서 개교식 거행, 애국가를 창 하고 고아원 학생들은 음악을 연주 하여 성향.
1908.10.16.	황성신문	共校盛況	다동 사립 공성학교에서 운동회 개설, 창가행진 하고 애국가를 연주 하니 박수갈채.
1908.10.31.	황성신문	益校秋況	전북 익산군 사립익창학교에서 추기 운동회를 개설하였는데 애국가 운동곡 은 청아하여 박수갈채
1908.11.01.	황성신문	赤社總會盛況	경희궁에서 적십자총회 거행, 총재전하 어지를 낭독한 후 봉답하고 대한국가를 연주 후 일동 경례
1908.11.17.	황성신문	主教歡迎盛況	천주교 민덕효씨가 귀국, 환영행사에서 대한제국, 태황제폐하와 교회를 위해 만세하고 애국가를 창
1908.11.29.	대한매일신보	同志學友親睦會	제주군 조천리 사립의흥보통학교 취지서-국기를 높이 제양하고 애국가를 박수제창 하리니
1909.01.14.	황성신문	救世軍의 愛國歌	태황제폐하가 도착 승녕부 총관 조민회를 보내 태황제폐하 도착을 주달하였더라. 구세군의 애국가에 나팔을 연주하며 애국가를 창 하고
1909.04.20.	황성신문	巨濟卒業式	경남 거제군 사립거제학교 제1회졸업식 거행, 증서수여와 졸업생 답사 후 애국가를 창 하고 폐식
1909.05.16.	대한매일신보	牧民歡迎	평북조산 기독교등심상학교 4개학교 연합하여 운동회, 서양북과 나팔을 연주 하고 애국가와 운동가를 합창 하며
1909.07.08.	대한매일신보	이국헌면 못쓰나	전남관찰사 신용희가 각 군에 훈령, 각 학교에 기부금과 학도의 애국가 부르는 것을 엄금 하자 도내 신사들이 비판
1910.01.18.	황성신문	調陽部議決	조양구락부 평의회 의결건-학교의 애국가 와 여향풍요 적당한 것으로 국민의 보통가곡을 보급케.
1910.05.20.	대한매일신보	興德紀念	함경남도 정평군 사립흥덕학교에서 1회 기념식을 거행, 회중이 수백명, 학도 80명 애국가를 제창 .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10.06.29.	신한민보	애국가 지은 죄	18세 이성식은 안창호가 될 만한 인물인데, 애국가를 지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 노래책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둠

1890년대 『독립신문』에는 수많은 애국가 가사가 실려 있는데 비해서 위와 같이 1900년대에는 애국가를 학교 행사 때 불렀다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개교식, 개학식, 방학식은 물론이고 운동회 때도 애국가가 반드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애국가 ‘짓기’에서 ‘부르기’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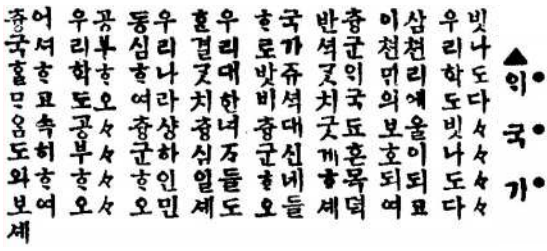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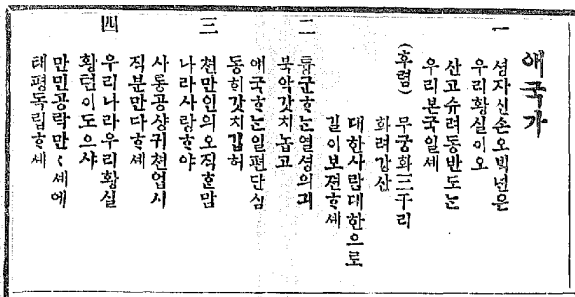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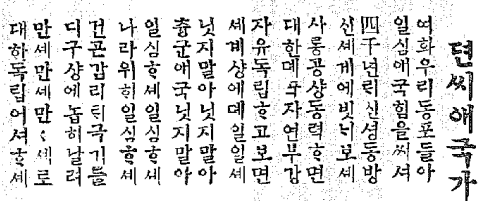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애국가운동이 일어났던 1890년대 직후인 1900년대 전반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부터 1908년 사이의 기사가 많다. 그리고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애국가를 기미가요로 대신 하거나 일본어로 애국가를 부르는 일이 생겨나거나 애국가를 금지하는 일도 조금씩 포착된다. 그러나 태극기를 들고 황제폐하 만세 등 만세삼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는 애국가를 금지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히 1910년 이후 국내 신문에는 애국가를 불렀다는 기사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1900년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애국가 가사는 『대한매일신보』와 해외 신문 『공립신보』와 잡지에 드물게 실려 있는데,²¹⁾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00년대 신문의 애국가 가사 게재 사례

『대한매일신보』, 1906.6.13. 愛國運動歌	
1907.5. 『太極學報』10호, 李源益의 〈愛國歌〉	

21) 아래에 제시하는 『태극학보』의 〈애국가〉 사료는 김수현·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 잡지편』 1권, 민속원, 2008, 30쪽과 37쪽을 이용하였다. 『태극학보』 18호 〈애국가〉 작사자 ‘愛國生’은 안창호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9.25. 愛國歌(亨) 粵兮	
『대한매일신보』, 1908.1.29. 임봉상 애국가	
1908.2. 『太極學報』18호, 愛國生의 (愛國歌)	
『공립신보』, 1908.3.11. 애국가	
『공립신보』, 1908.4.1. 면씨애국가	

Ⅲ. 1910년 이후 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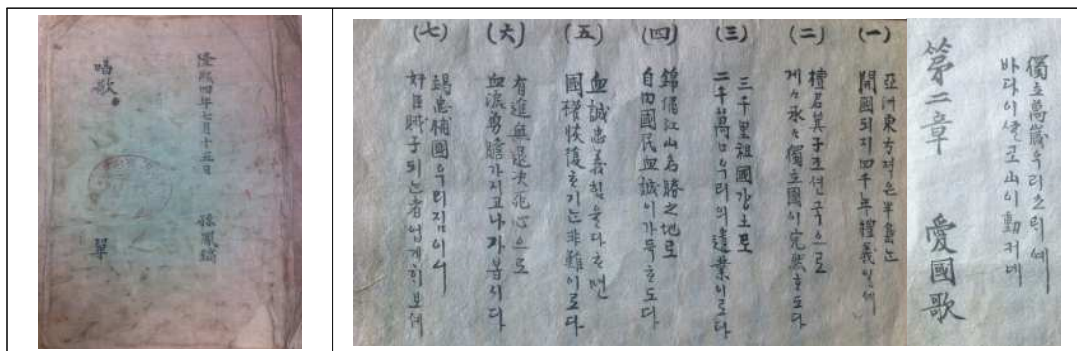
1. 1910년대 애국창가집에 담긴 애국가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애국가는 ‘애국가 운동’으로 전개되어 개별 곡이 신문지상에 발표 소개되는 정도였는데 비해 1910년대에는 국외에서 애국가를 담은 창가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이런 류의 창가집을 애국창가집이라고 하고 거기에 담긴 노래들을 ‘애국창가’라고도 했다. 1910년 일본의 병탄으로 애국가 부르는 금지되었고 국내에서 발간된 창가집은 바로 압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²²⁾ 애국창가집은 주로 국외에서 활동한 기독교계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진영에서 나오게 되었다. 주로 학교의 음악교재로 쓰이거나 독립운동 조직이나 단체에서 쓰인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가사만 실려 있는 창가집 두 권과 악보로 되어 있는 창가집 두 권을 살펴보겠다.²³⁾

(1) 애국창가 가사집

1) 손봉호 『창가』

손봉호 『창가』는 표지에 발행자 ‘孫鳳鎬’, 발행일 ‘隆熙四年七月十五日’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필사본 애국창가집이다. 이렇게 융희4년(1910)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년도가 있어서 이후 년대가 명확한 창가집과 비교하면 당시 불렸던 많은 종류의 애국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²⁴⁾



손봉호 『창가』의 표지와 <제12장 애국가> 부분

22) 예를 들면, 한영서원에서 1915년에 발행했다고 하는 『창가집』이나 1921년 근화사에서 발행한 노영호 편찬의 『근화창가』 등을 들 수 있다(『근화창가』는 현재 그 원본이 현재 평택의 한국근현대음악관에 전시되어 있다). 김보희, 「1910년대 국외 ‘애국창가’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 - 하와이판 『애국창가』(1916)를 중심으로」, 『동양학』 78, 단국대동양학연구원, 2019, 180쪽에 서도 악보집으로 1913년에 발행된 명동학교의 『신찬창가집』이 있었는데 치안과 출판법 위반으로 금서 처분되었다고 한다.

23) 이하 소개하는 4권의 창가집의 명칭은 앞이 발행자, 필사자, 발행처를 말하고 뒤의 『』 안에는 책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표기하였다.

24) 이 손봉호 『창가』 이미지 파일 자료를 제공해 주신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손봉호 『창가』에 수록된 곡은 모두 27장이지만 14장 이후는 목록만 남아 있고 낙장되어 있어 곡 전체를 볼 수는 없다.²⁵⁾ 〈第一章 精神歌〉에서부터 〈第二十七章 時有變遷歌〉까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 표기를 빼고 차례대로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精神歌〉, 〈愛國歌〉, 〈兵式行步歌〉, 〈愛國歌〉, 〈學徒惜時歌〉, 〈勸學歌〉, 〈學徒愛國歌〉, 〈學徒預備歌〉, 〈大韓國魂歌〉, 〈學徒進歩歌〉, 〈乾元節慶祝歌〉, 〈愛國歌〉, 〈運動歌〉, 〈乾元節慶祝歌〉, 〈勸學歌〉, 〈國權回復歌〉, 〈女學徒勇進歌〉, 〈責任歌〉, 〈國旗歌〉, 〈擊壤歌〉, 〈乾元節慶祝歌〉, 〈國字歌〉, 〈即位紀念慶祝歌〉, 〈競進歌〉, 〈少年猛進歌〉, 〈運動歌〉, 〈時有變遷歌〉

위의 27곡 중에서 애국가에 속하는 곡은 〈제1장 정신가〉 〈제2장 애국가〉 〈제4장 애국가〉 〈제7장 학도애국가〉 〈제9장 대한훈가〉 〈제12장 애국가〉 〈제16장 국권회복가〉 〈제19장 국기가〉 등을 들 수 있다. 〈정신가〉의 경우는 당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곡으로 이 노래는 일제가 부르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국외에서는 애국가로 불렸다고 전하기도 한다.²⁶⁾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는 이 곡을 ‘단군성조 건국하옵신’으로 시작하는 〈애국가〉 곡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손봉호창가집』에 실린 애국가 중에서 낙장되지 않고 남아 있는 5곡을 1절가사와 후렴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손봉호 『창가』의 애국가 곡의 1절가사와 후렴 및 예상되는 곡조

제목	1절 가사	후렴(後念)	예상 악곡
第一章 精神歌	畚耜도다 우리民族아 四千餘年 歷史國으로 子子孫孫 福樂히다가 오날날 이지경이 웬일인가	鐵絲紬絲로 結縛한 줄을 우리 손으로 쓴여 바리고 獨立萬歲 우리 소리에 바다이 쓸코 산이 動컨네	광82-정신 호3-정신가
第二章 愛國歌	亞洲東方 적은 半島는 開國되지 四千年禮義일세		광45-독립 호29-독립가
第四章 愛國歌	妙하고 妙하다 우리大韓은 三千里 江山이 奇妙히도다 代代로 聖君은 우리나라요 忠孝兼全함은 우리 學徒-리세		호19-애국가

25) 장유정,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애국가장가집, 『창가』(손봉호(孫鳳鎬), 1910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장유정은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괘종을 들어보시오”의 가사로 된 〈학도석시가〉를 김인식의 〈학도가〉라고 하였는데, 8장 〈학도예비가〉와 혼동한 듯하다. 〈학도석시가〉는 『최신창가집』의 세 개의 〈학도〉 중에 128쪽의 〈철도창가〉 곡조로 된 〈학도〉가와 같다고 해야 한다. 8장 〈학도예비가〉는 『최신창가집』 42쪽 “학도야 학도야 저기 청산 바라보게 고목은 썩어지고 영목은 소생하니” 가사의 〈학도〉로 김인식 작이다.

26) 『황성신문』, 1909년 6월 5일자. “평안도 및 함경도 내 각 사립학교에서는 발포한 창가 중에 정신가(精神歌) 및 동포경성가(同胞警醒歌)는 교육상에 부적당하다 하여 학부에서 금지할 터이라더라”; 노동은, 앞의 책 169쪽.

27) 예상악곡 부분은 『최신창가집』과 호놀룰루 『애국가장가』의 악보와 대조하여 어떤 곡조로 불렀을 것인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광○은 광성학교 『최신창가집』, 호○은 호놀룰루 『애국가장가』이다.

제목	1절 가사	후렴(後念)	예상 악곡
第七章 學徒愛國歌	萬王의 王 우리호느님게옵서 世界萬國들을 創立호실시 大韓帝國 비록 적을지라도야 오날까지 特別 스랑호섯네	學徒들이야 學徒들이야 大韓帝國잇는 學徒들이야 힘들 습시다 힘들 습시다 忠君愛國으로 힘들 습시다	
第九章 大韓國魂歌	華麗호 江山 우리 大韓은 三千里 범위 적지 안토다 白頭山으로 漢拏山까지 自然호 경기그려 닛토다	先祖도 임의 여기 못치고 우리도 大韓 魂이 되리니 四千年 조국 大韓 강토로 넉집을 넉가 保全호시다	광17-대한혼 호38-대한혼
第十二章 愛國歌	華麗江山 東半島 우리 帝國이요 四千餘年 檀君子孫 우리 國民일세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름 大韓으로 기리 保全호세	

위와 같이 〈학도애국가〉를 제외한 다른 노래들은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이나 호놀룰루 『애국창가』에도 실린 곡이기 때문에 가사만 적혀있어도 이 곡을 어떻게 불렀을지 알 수 있다. 그리고 12장 애국가는 작곡가 김인식이 1910년 『보충친목학회월보』 6월호에 〈Auld Lang Syne〉 곡조에 본인이 본절 가사를 써서 악보로 게재한 곡의 1절 가사와 ‘무궁화가’ 후렴이다.²⁸⁾

2) 손승용 『창가집』

손승용 『창가집』은 손승용목사의 유품 중에 창가를 모아 놓은 수첩을 말한다. 손승용(孫承鏞 · 1855~1928)은 전남 나주의 양반출신으로 1896년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하였고 1900년 인천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영화학교에 교사로 교육했던 사람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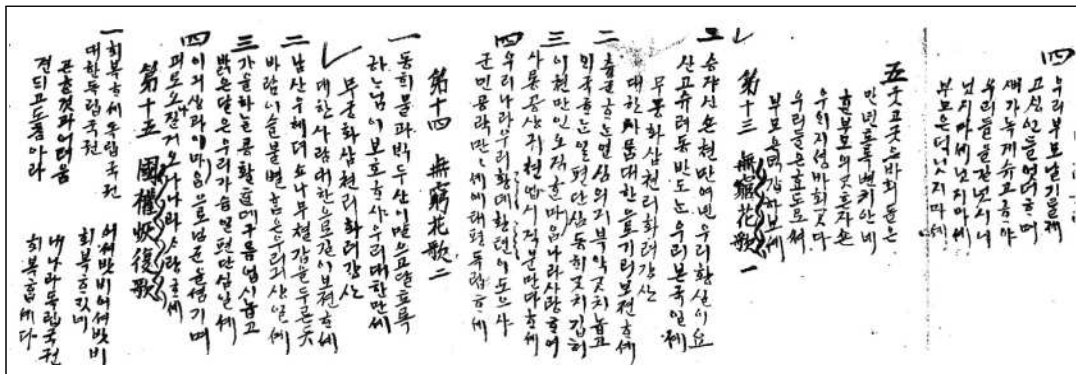
손승용 『창가집』에 담긴 곡은 각각의 곡명 앞에 순서를 붙였고 같은 곡명에도 一 二 三으로 번호를 붙였는데, 앞 뒤에 낙장이 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第三 愛國歌〉부터 〈第四十九 居鄉歌〉까지인데, 곡명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28) 앞서 살펴본바듯이 이 김인식 작사의 애국가는 실제로 1절만 작사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6월에 게재된 곡이 어떻게 한 달 만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손봉호창가집』에 실릴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김도훈은 앞의 논문 249쪽에서 이 애국가는 표현 몇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무궁화노래 - ‘성자신손’으로 시작되는 『찬미가』 10장으로 실린 - 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다. 1절조차도 몇 단어를 첨가하고 앞뒤를 바꾸어 놓았으니 작사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29) 『경인일보』, 2016년 6월 23일자. 이 창가집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인천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이성진 교사라고 한다. 이를 처음 발견한 옥성득 미국 UCLA 석좌교수(한국기독교학)는 “손승용 목사 창가집에는 그가 학생과 교인들에게 가르친 창가(찬송가) 57곡이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30) 여기에서 소개하는 손승용 『창가집』은 故노동은 교수의 소장자료였는데, 표지 없이 내용만 있는 51쪽의 복사본이었으며 현재는 평택시 ‘한국근현대음악관’에 보관되어 있다. 사실상 이 자료의 원본이 창가집으로 돼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손승용 『창가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愛國歌二〉, 〈精神歌一〉, 〈精神歌二〉, 〈愛國歌三〉, 〈少年歌〉, 〈少年冒險猛進歌〉, 〈大韓魂歌〉, 〈國旗歌〉, 〈兵式行步歌〉, 〈父母恩德歌〉, 〈無窮花歌〉, 〈國權回復歌〉, 〈守節歌〉, 〈勸學歌〉, 〈前進歌一〉, 〈前進歌二〉, 〈前進歌三〉, 〈勇進歌〉, 〈行步歌〉, 〈學徒歌一〉, 〈學徒歌二〉, 〈學徒歌三〉, 〈結義歌〉, 〈獨立歌〉, 〈學生歌〉, 〈希望歌〉, 〈世界地理歌〉, 〈望鄉歌〉, 〈自由歌〉, 〈學徒歌〉, 〈作別歌〉, 〈大韓魂歌〉, 〈救世軍歌〉, 〈耶蘇誕辰慶祝歌一〉, 〈耶蘇誕辰慶祝歌二〉, 〈耶蘇誕辰慶祝歌三〉, 〈耶蘇誕辰慶祝歌四〉, 〈耶蘇教傳道歌〉, 〈皇上誕辰慶祝歌〉, 〈恩德布世歌〉, 〈教育歌〉, 〈忠節歌〉, 〈運動歌〉, 〈勸勉歌〉, 〈百萬名救援歌〉, 〈居鄉歌〉



손승용 『창가집』 〈제13 무궁화가1〉 〈제14 무궁화가2〉 〈국권회복가〉 등 부분

손승용 『창가집』에는 제49까지의 차례번호가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애국가〉 · 〈국기가〉 · 〈무궁화가〉라는 제목이 달린 곡만 간추려 그 1·2절 가사와 함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손승용 창가』에 실린 애국가

곡제목	1절 가사	후렴	예상 악곡
第三 愛國歌二	우리황송폐하 텃디일월긋치 만슈무강 산높고 물고흔 우리대한데국 ○○○○샤 독립부강 금강천만봉에 날밧친란흙은 태국괴○○○		광15-애국2
第六 愛國歌三	아세아동편에 돌출 혼반도 면적이구만리인구이천만 십삼도각군그이니삼백륙십사 당당 혼대대국이분명 호도다		
第九 大韓魂歌	화려 혼강산 우리대한은 삼천리범위 적지안토다 빅두산으로 한라산긋지 자연 혼경기 그려닛도다	선조가임의 여긋못치고 우리도대한 혼이되리니 사천년조국 대한강토로 내집을내가 보호 호 갖네	광17-대한혼 호38-대한혼
第十 國旗歌	아세아동대한국은 하늘이슬히신내나라 태극조판 호옴실적 우리나라창업코 어천만세무궁토록 무궁으로견고히 문명텃디빅일하에 영원토록빛네		광2-국기가 호8-국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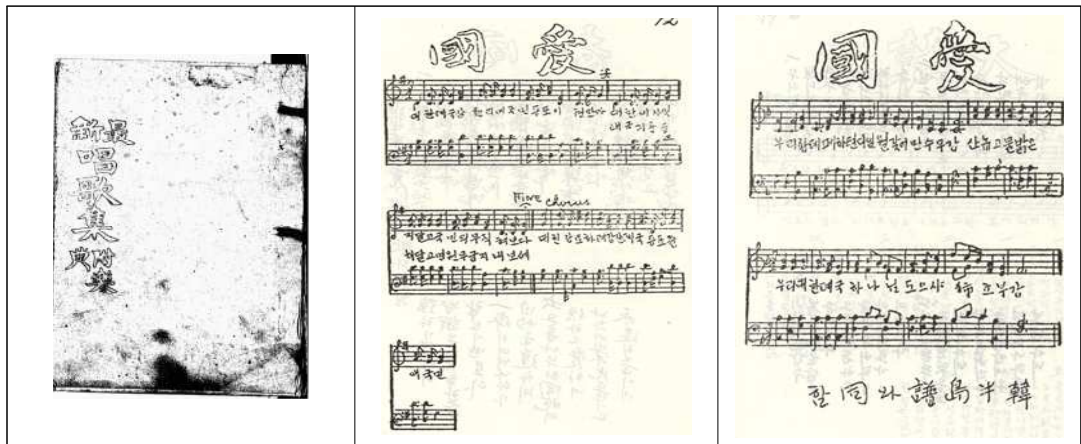
곡제목	1절 가사	후렴	예상 악곡
第十三 無窮花歌 一	승자신손천만여년우리황실이요 산고슈려동반도는우리본국일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대한사름대한으로기리보전호세	광1-국가1 호37-애국가4
第十四 無窮花歌 二	동희물과빅두산이말이고달도록 하느님이보호호샤우리대한만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보전호세	광1-국가1 호37-애국가4

손승용 『창가집』의 애국가를 살펴보면, 1908년의 『찬미가』에 실린 애국가 세 곡, 즉 데-데(우리 황상폐하~) 데+ (성자신손 오백년은~),³¹⁾ 데+四(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전부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³²⁾ 손승용 『창가집』은 비록 창가집으로 출판된 바는 없지만 당시의 불렀던 창가, 특히 애국창가를 상당량 담고 있으며 애국가만 하더라도 9곡이나 수록돼 있다는 점으로 볼 때 1910년대 애국가 연구에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애국창가 악보집

1) 광성학교 『최신창가집』

광성학교 『최신창가집』³³⁾은 1914년 7월 15일에 간도에 있었던 민족학교 광성학교에서 음악교재용으로 발행한 등사본 책이다. 이 책은 국가보훈처가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입수하여 1996년 영인했다. 『최신창가집』을 발행한 광성학교(光成學校)는 1909년 설립된 서전서숙(瑞甸書塾), 1907년 설립된 창동학교(昌東學校), 명동서숙(明東書塾), 1911년 설립된 신흥학교(新興學校)와 같은 간도지역의 망명학교이다. 광성학교



광성학교 『최신창가집』 표지와 악보 〈애국〉 두 개

31) 이 중에서 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에 소개된 곡이다.

32) 이 때문에 이 자료가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33) 『최신창가집』의 원 제목은 『最新唱歌集 附樂典』으로 창가집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악보집이 아니라 152곡의 악보와 음악이론인 악전이 함께 들어 있는 음악교과서이다.

는 소영자에서 1912년 3월에 개교한 길동 기독교당이 확대 개편된 학교이며 이동휘(李東輝)와 계봉우(桂奉瑀)가 세운 학교로서 독립운동이 목표였고 민족주의 교육과 함께 법학·과학·한문·외국어·역사·산술·체조·도화·창가 등 17개 과목을 가르쳤다.³⁴⁾ 김보희는 이 악보집에 수록된 152곡의 악곡을 분석하여 이 곡 전체 악곡의 성격은 당시의 창가집과 같이 찬송가풍, 창가풍, 민요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교과서로 파악하였다.³⁵⁾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의 애국가 곡은 〈애국〉 〈애국가〉 〈국가〉 〈국기가〉 〈대한혼〉 〈국민〉 〈한반도〉 등 19곡이다. 이 중 〈국가〉라는 제목의 애국가가 두 곡 나오는데, 하나는 〈Auld Lang Syne〉 곡조의 ‘동해물과 애국가’이고 하나는 〈대한제국애국가〉이다. 가사는 ‘황제’ 대신 ‘대한’으로, 성수무강 대신 ‘독립부강’으로,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대신 ‘태극기를 빛나게 하옵시고’로 바꾸었다. 이 애국가 15곡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 실린 애국가

곡제목	1절 가사	후렴
國歌1	東海물과 白頭山이 맡고 달토록 한아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萬歲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國旗歌	亞細亞 東大韓國은 하늘이 살피신 내나라 太極조판 하옵실 때 우리나라 創立코 於千萬歲 無窮토록 無極으로 堅固해 文明天地 白日下에 永遠토록 빛나네	
愛國1	大韓帝國 三千里에 國民同胞 二千萬아 大韓二字 잊지말고 國民義務 직혀보세	大韓疆土 華麗江山 帝國同胞 忠愛國民 太極旗를 높이 달고 영원무궁 지내보세
愛國2	우리황상 폐하 텃디일월같이 만수무강 산높고 물맑은 우리대한국 하나님 도으샤 독립부강	
大韓魂	화려한 강산 우리대한은 삼천리 범위 적지안토다 백두산으로 한내산까지 자연한 경개 그려넛도다	선조임이 여기 무쳤고 우리도 대한 혼이 되리니 사천련 조국 대한강도를 내집을 내가 보호하겠네
愛國3	텃디를 개벽한 후에 동방반도 대한 황텃이 품부했으니 우리것 아니냐 내가 아니 직히면 누가 직힐소냐 정신차려 눈을 뜨라 지금이 어나때냐	
國民1	던둥같이 나는 소리 금석의 종 울니난 듯 우리의 自由性일세 뉘능히 대항하리요	걱정마라 부모국아 걱정마라 부모국아 自由를 爲하야 나섰내니 넘네할 것 아쥬 없네
國民2	우리님군 폐하 한아님 도으샤 일월같은 성덕 우주에 떨치소서 국민을 사랑하샤 어진 덕을 빔내시니 위권이 환우 뵈이로다 우리님군 폐하 하나님 도우쇼서	
愛國歌	긴날이 맛도록 생각하고 깊은밤 들도록 생각함은 우리나라로다 우리나라로다 길이 생각하네 길이 생각	

34)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 : 만주·러시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64~66쪽.

35)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 - 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한국국악학회, 2008, 15~49쪽.

곡제목	1절 가사	후렴
愛國4	단군성조 건국하옵신 아주동방 우리 대한민국 사천여년 력사국으로 오늘날 이지경 웬일인가	대한국 동포 우리민족아 자유의 정신을 진흥하여라 우리의 독립 만만세토록 하나님 앞에 축원합시다.
愛國5	대한국민 동포들아 정신들 차려라 몸과 맘을 모다 바쳐 내 나라 사랑해	
愛國6	단군성조 유풍여숙 사천년 전해서 산명수려 우리대한 열성조 나셨네	
愛國7	우리나라 대한데국 만세무강 하옵소서 백두산이 외외하고 한강수는 양양한데 단군성자 이천만중 그와같이 희고맑다	
學生愛國	산골과 물맑은 우리 동반도는 四千여년 내려오는 우리집이니 四시 후 항상 좋고 화평헌데 우리 그중에서 호홉호나	나아가누나 나아가누나 우리학생들이 나아가누나
國歌2	上帝난 우리大韓을 도우소서 獨立富強하야 太極旗를 빛나게 하옵시고 勸이 環瀛에 떨치니 於千萬歲에 永久게 하소서 上帝난 우리大韓을 도우소서	

2) 호놀룰루 『애국창가』

『애국창가』는 1916년 5월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등사판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등록문화재 제 475호로 지정되어 있다.³⁶⁾ 이 창가집 역시 음악교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광성학교 『최신창가집』과 같은 정식 음악교과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창가집, 즉 악보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곡이 77곡이며 악보가 있는 것이 59곡이지만 나머지는 어떤 곡과 같다고 되어 있어 전체 곡이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있다. 〈애국가〉가 맨 처음 나오고 이어 〈국민가〉 〈국기가〉 등 대체로 애국가 곡이 앞에 상당수 실려 있어 독립을 염원하는 성격의 창가집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구구성탄가〉 〈성경책명기억가〉 〈십자형가〉 찬송가까지 그대로 실고 있어 노래가 불릴 대상자가 기독교계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호놀룰루 『애국창가』 표지와 〈제19장 애국가3〉 〈제38장 대한훈〉 악보

36) 호놀룰루 『애국창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2019; 김보희, 「1910년대 국외 '애국창가'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 - 하와이판 『애국창가』(1916)를 중심으로」, 『동양학』 78, 단국대동양학연구원, 2019.

『애국창가』에 수록된 〈애국가〉 〈국기가〉 〈보국가〉 〈대한훈가〉 등 애국가 9곡을 실린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놀룰루 『애국창가』에 실린 애국가

제목	1절 가사	후렴
제二장 애국가	동반구 아주에 우리대한은 일면은 룽지오 三面수로다 화려한 강산이 八만여방리 분형훈 반도형 그려났도다	청년아 청년아 한국 청년아 몽롱훈 깊은잠을 속히 깬여서 애국성을 분발하여서 이 좋은 강산을 보전하세다
제四장 국민가	천동같이 나는 소리 금석이 또올이는 듯 우리의 자유성일세 뉘능히 디항하리오	걱정마라 부모국아 걱정마라 부모국아 자유를위하여 너엿느니 염려할 것 아조없네
제五장 보국가	四千여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산은 높고 물은 맑은 명승디로세 말도 같고 의복 같은 우리 동족이 한 마음 한뜻일세	만세만세 二千만 동포 만세 만세 三千里 강토 우리들의 힘으로써 도와 봄세다 영세무강켓네
제八장 국기가	아세아동 대한민국은 하늘이 살이신 내나라 태극조판 홍읍실 새 우리 나라 창립코 어천만에 무궁토록 무극으로 견고히 문명턴디 빅일 하에 영원토록 빛느네	
제十五장 애국가	산고과 물맑은 우리동반도는 四千여년 내려오는 우리집이니 四시 후 항상 좋고 화평하데 우리 그중에서 호홉하누나	나아가누나 나아가누나 우리학실들이 나아가누나
제十九장 애국가	묘하고 묘하다 우리 조선은 三千里 강산이 괴묘하도다 덕되로 성군은 우리 나라오 충효 익국겸전훈은 우리 학도르세	
제二十九장 황실가	상대는 우리 황제 황대를 도으샤서 성슈무강하샤 히옥쥬를 山같이 싸으시고 권이 환영에 떨치샤 어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쇼서 상대는 우리 황대를 도으쇼서	
제三十七장 애국가	동희물과 빅두산이 말오고 달토록 하느님이 보우하샤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三千里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히 보전하세
제三十八장 대한훈	화려한 강산 우리대한은 三千里 범위 적지안토다 백두산으로 한라산까지 자연하 경기 그려났도다	선도가 임의 여귀 꽃이고 우리도 대한 훈이 되리라 四千年 조국 대한 강토로 내집을 내가 보호하켓네

『애국창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국가 악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 실린 곡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곡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곡인 경우의 특징은 『최신창가집』의 제목에 가(歌)를 붙여 놓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신창가집』의 〈애국〉 〈한반도〉 등이 『애국창가』에는 〈애국가〉 〈한반도가〉 등의 제목으로 붙여져 있다. 또한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도 〈국가〉라고 해서 실려 있는 〈대한제국애국가〉를 제목만 달리해서 실어놓은 〈황실가〉는 그 이름에 맞게 가사는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3) 1910년대 애국창가 곡조 특징

『항일음악330곡집』은 항일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곡을 330곡으로 선별하여 해당 악보를 제시하고 작사 작

곡자 규명은 물론이고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하는 해제를 달아 놓은 항일가요 악보집이자 연구서이다.³⁷⁾ 이 책에 실린 1910년대의 애국가의 악곡은 주로 위에서 다룬 네 권의 창가집, 즉 손봉호 『창가』, 손승용 『창가집』, 광성학교 『최신창가』, 호놀룰루 『애국창가』에 실린 애국가의 곡을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 책에 분석해 놓은 것을 토대로 위의 창가집에 있는 25곡의 애국가 원 작곡자와 차용곡이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항일음악 330곡집』 중 1910년대 창가집에 실린 애국가 악곡

	곡명	가사 앞 부분	작사자	작곡 또는 곡
1	011-국가	내나라 위하야 상주께 빚니다 도읍소서	미상	헨리 캐리
2	012-국기가1	아세아동 대한민국은 하늘이 살피신 내나라	미상	미상
3	017-대한노래	우리는 대한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노래	말콤C.펜윅	헨리 캐리
4	018-대한제국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성수무강	대한제국	프란츠 에케르트
5	019-대한혼가	화려한 강산 우리대한은 삼천리 범위	미상	미상
6	028-무궁화가1	성자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미상	스코틀랜드민요
7	029-무궁화가2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국인공동	스코틀랜드민요
8	030-무궁화노래	우리나라 우리 임군 황천이 도우사	윤치호	스코틀랜드민요
9	045-애국가1	긴 날이 맞도록 생각하고 깊은밤 들도록	안창호	로웰 메이슨
10	046-애국가2	단군성조 건국하옵신 아주동방 우리 대한민국	미상	미상
11	047-애국가3	동반구 아주에 우리 대한은 일면은 육지요	미상	미상
12	048-애국가4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국인공동	스코틀랜드민요
13	049-애국가5	우리 황상폐하 천지일월같이 만수무강	미상	헨리 캐리
14	050-애국가6	대한제국 삼천리에 국민동포 이천만아	미상	독일 민요
15	051-애국가7	대한제국 삼천리에 국민동포 이천만아	미상	엘리시아 스코트
16	052-애국가8	대한국민 동포들아 정신들 차려라	미상	미상
17	053-애국가9	단군성조 유풍여속 사천년 전해서 산명수려	미상	로웰메이슨 편곡
18	054-애국가10	우리나라 대한제국 만세무강 하옵소서	미상	미상
19	055-애국가11	천지를 개벽한 후에 동방반도 대한 황천이	미상	엘리시아 스코트
20	056-애국가12	화려강산 동반도는 우리본국이오 품질좋은	김인식	스코틀랜드민요
21	065-전씨애국가	어화우리 동포들아 일심애국 힘을 써서	전명운	스코틀랜드민요
22	070-정신가	슬프도다 우리민족아 사천여년 역사국으로	미상	미상

37) 노동은, 『항일음악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 악보를 다 실을 수 없고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지면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미 연구된 이 책에 실린 애국가의 곡들과 해설을 활용하고자 한다.

	곡명	가사 앞 부분	작사자	작곡 또는 곡
23	071-조선국가	상제는 우리 나라를 도우소서 영원무궁토록	미상	미상
24	086-국민1	천둥같이 나는 소리 금석의중 울리는듯	미상	카를 비헬름
25	087-국민2	우리임금 폐하 하나님 도우사 일월같은	미상	미상

『항일음악 330곡집』에서 분석한 1910년대 창가집에 실린 애국가 25곡의 곡조를 살펴보면, 어떤 것은 찬송가, 어떤 것은 영국국가, 어떤 것은 독일민요, 어떤 것은 미국민요 등으로 다양한 노래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국가의 곡조만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스코틀랜드 민요가 가장 많다. 스코틀랜드 민요라고 하는 이 곡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Auld Lang Syne〉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헨리 캐리 작곡이라는 것은 현재 영국의 국가인 〈God save the Queen〉곡조로 된 것을 말한다. 엘레시아 스코트 작곡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애니로리〉로 알려진 곡을 말한다. 그리고 로웰 메이슨 작곡과 편곡의 곡이 있는데, 로웰 메이슨 작곡의 〈애국가1〉은 찬송가 〈Nearer my God to Thee〉가 원곡이고 로웰 메이슨이 편곡한 곡 〈애국가9〉는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곡조이다. 그리고 독일민요로 부른 〈애국가6〉은 우리에게 〈소나무야〉로 알려져 있고 〈적기〉로도 불렸던 곡조이다. 이 외에 미상인 곡도 5곡이나 되는데, 〈애국가2〉와 〈애국가3〉은 가사만 다른 같은 곡이기 때문에 작곡자 미상의 곡은 네 종류가 있는 셈이다.

2. 1920년대 이후 항일의 상징으로 부상한 애국가

1910년대 애국가창가집에 수록된 곡들은 1890년대부터 지어진 애국가 곡들이 상당수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곡이 많이 추가 되었고 가사도 항일적인 내용이 더욱 뚜렷하게 가미되었다. 1920년대는 3.1운동을 기점으로 애국가 양상이 또 다르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훨씬 더 통제가 심해져서 애국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지만 국외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불렀고, 내용적으로도 뚜렷한 항일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3.1운동 이후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져 국가의식에서 애국가의 쓰임이 확고해짐과 동시에 애국가가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계기로 독립운동 투쟁이 강해지고 일제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던 상황에서 나라사랑과 같은 나약한 내용의 노래보다는 더 투철한 항일정신을 담은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졌다. 그리고 독립군들의 희생이 더욱 많아지면서 추도가가 많이 만들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보면 1920년대 신문기사에는 수십 개의 ‘불온창가’ 관련 기사가 나온다. 그 중에는 애국가를 부르거나 가르쳤다가나하는 이유로 검거, 체포, 구속 등의 기사도 상당 수 발견된다.

1920년대 애국가 관련 신문기사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20.08.20.	동아일보	學生救國團의 檢舉	휘문학생 박선태 외 5명을 검거 했는데 해외에서 송부한 독립신문 대한민보 애국가 등을 받아 비밀리 활동했다고.
1921.07.17.	每日申報	愛國歌를 教授	경북 청송군 소락동 예수교회에서 불온창가 를 교수에 주의를 받고 용진가 애국가 를 배웠다고 학생들에게 자백 받음.
1921.11.08.	동아일보	咸興에서 二十九名	함경남도에서 검거 한 29명의 독립단은 청년구락부를 조직, 독립운동 강연과 애국가 를 불러서 군중을 선동
1923.05.27.	조선일보	瑞興刑所 絶食同盟	해주형무서의 서흥분서에서 제령위반범 20여명이 입을 모아 일제히 대한애국가(大韓愛國歌) 를 높이 부르다가 간수에게 매를 맞음 .
1923.10.02.	조선일보	愛國歌로 警察署	경남 하동공립보통학교 이두석이라는 학생이 외국가 몇 종이 쓰여 있는 책 을 동무에게 빌려주다 주재소원의 눈에 띄어 경찰서에 .
1924.05.10.	시대일보	愛國歌로 又檢束	동대문경찰서에 시내 모처에서 중등학생 세 명을 검거 , 평안북도 강계경찰서 의뢰, 애국가 를 불렀다는 이유로.
1926.11.06.	조선일보	宣言書朗讀 愛國歌 高唱	황해도 장언군 권충청년사건 - 부호 곽환의 집에 침입한 청년이 선언서를 낭독, 애국가 를 고창 할 즈음에 순사 일동이 현장에 출동 체포 .
1928.05.03.	每日申報	崇實生檢束	사립 숭실전문학교 생도가 평양서에 검속 되어 취조당함. - 동교 신입생 환영회 당시 구한시대의 애국가 를 부른 것이 발견되어.
1928.10.27.	조선일보	六十老人의 陰毒과 愛國歌 事件	평양 리봉훈 노인은 아들이 평양 모전문학교 운동교사로 온 가족이 생계를 의지하다 학생회에서 " 동해물과 백두산이 "라는 애국가 를 불렀을 때 제지 못시킨 이유로 해직, 타학교 전직도 어렵자 음독자살.
1929.09.23.	中外日報	江西少年會創立記念式	평남 강서소년회 창립 2주년 기념식 거행 도중 여흥으로 無窮花라는 노래 를 부르던 중 하등 구체적 이유 없이 금지 시켜 장내뒤편 함악.

위와 같은 기사의 사례에서만 보아도 1920년대의 국내에서 애국가와 관련되었을 때 처해진 상황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인 아들이 애국가를 부른 학생을 제지하지 않아 해직되자 음독자살을 기도한 내용이나 독립운동 발각으로 투옥되어 감옥에서 애국가를 부르다가 매를 맞았다는 기사를 보면 그 처절함을 알 수 있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애국가는 금지의 대상으로만 검색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소위 친일 군국가로서 애국가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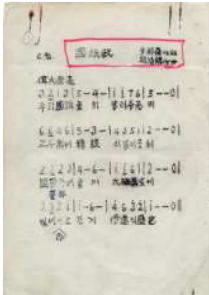
1930년대 국외의 양상을 보자면, 임시정부에서는 애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일반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애국가보다는 3.1절 노래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항일가요의 노래 내용 또한 훨씬 투쟁적인 양상으로 변화된다. 1931년 9.18 만주침략이 발생하고 1932년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일

38)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친일 군국주의 찬양의 대대적 '애국가요 운동'은 애국가 자체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된 우리민족의 애국심을 반대로 돌려 호도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의 군국주의가 팽창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전역에서 항일 투쟁이 일어났고 한국독립군들도 함께 항일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일제가 대동아공영 기획에 맞춰 내선 일체를 획책하자 이에 정비례해서 항일 투쟁도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사랑하자'라는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일제와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쓰러져간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가사가 항일가요에서 중요한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1910년대 이전에 김인식·이상준 등이 애국가와 애국창가 만들기에 기여를 했다면 1920년대 이후 특히 1930년대에는 전문 음악인으로서 항일 무장투쟁과 음악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윤세주·이두산·한유한·정율성·최음파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한유한(韓悠韓, 본명 한형석, 1910~1996)³⁹⁾의 항일음악활동 산물 중 하나인 1943년 『광복군가집』⁴⁰⁾이 주목된다. 이것은 한국광복군 제2지대선전위원회에서 광복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만든 악보집이다. 광복군 마크를 직접 그려 넣은 표지에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아주 작고 얇게 되어 있다. 손바닥 정도 크기의 이 노래책에서 당시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고 광복군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느낄 수 있다.

한유한은 자신이 작곡한 곡과 당시 유행했던 항일가요 16곡을 숫자보 악보로 적고 전체 절의 가사를 꼼꼼하게 달아서 『광복군가집』을 만들었다.⁴¹⁾ 수록곡을 보면, 〈국기가〉·〈2지대가〉·〈신출발〉·〈압록강행진곡〉·〈조국행진곡〉·〈여명의노래〉·〈우리나라 어머니〉·〈흘러가는 저 구름〉 등 자신이 작곡한 8곡이 있고, 이두산 작곡 〈광복군가〉·〈선봉대〉, 신하균 작곡 〈앞으로 행진곡〉이 있다. 또 한국민요에 가사를 붙인 〈광복군아리랑〉(밀양아리랑)·〈광복군석탄가〉(석탄가) 2곡이 있다. 그 외에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하다 1942

		〈國旗歌〉 李範奭 作詞 韓悠韓 作曲 우리國旗 높이 날이는 곳에 三千萬의 精誠 쇠같이 뭉쳐 盟誓하네 굳게 太極旗 앞에 빛내라고 길게 倍達의 歷史
---	---	--

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의 『광복군가집』 표지와 〈국기가〉 및 가사

39) 부산근대역사관, 『대륙에 울려 퍼진 항일정신 먼구름 한형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2006; 장경준, 『한형석평전』, 산지니, 2020.

40) 『光復軍歌集 第一集』, 韓國光復軍 第二支隊 宣傳委員會, 1943. 현재 이 자료는 등록문화재 제472호로 지정되어 있다. 표지 이미지와 악보 이미지를 제공해 주신 소장자 한중수님께 감사드립니다.

41) 『광복군가집』에는 전 곡이 악보로 실려 있다. 광복군 제2지대에 속해 있었던 한유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항일가곡을 작곡했고 〈아리랑〉(1940)을 대표로 하는 많은 항일가곡을 만든 항일음악가이자 광복군이였다.

년에 전사한 윤세주 작곡의 〈최후의 결전〉과 차용된 곡조지만 널리 유행하면서 거의 한국화 된 〈용진가〉가 실려 있다.

이 악보집을 발행한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창설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한국광복군은 1938년 충칭(重慶)과 시안(西安) 일대에서 활약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하거나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범석·김학규·이두산·이해평·신덕영·신하균 등 작사자나 작곡자 한유한은 모두 한국광복군이였다. 위 이미지는 『광복군가집』에 실린 첫 곡으로, 이 〈국기가〉는 광복군의 국기계양 의식 때 항상 불렀다고 한다.

IV.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

‘동해물과 애국가’의 연원은 ‘무궁화 삼천리’로 시작되는 후렴을 가진 ‘무궁화가’에서 찾을 수 있다. 1899년 『독립신문』에 게재된 〈무궁화노래〉에서부터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때까지 ‘동해물과 애국가’가 게재된 사료를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⁴²⁾

1. 1910년 이전 ‘동해물과 애국가’

1910년대 이전의 ‘동해물과 애국가’와 관련 있는 곡은 전부 ‘무궁화 노래(‘무궁화가’)로 범칭 할 수 있다.⁴³⁾ 이 ‘무궁화가’에 대한 흔적은 1897년 8월 17일자 개국기원절에 배재학당 학원들이 부른 ‘무궁화노래’와 같은 날짜 영문판 『독립신문』에도 National Flower(‘무궁화 노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실제 ‘무궁화’ 가사는 실려 있지 않다.⁴⁴⁾ 아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1899년 6월 29일자에 처음 ‘성자신손 오백년’으로 시작하는 무궁화 후렴의 노래 ‘성자신손 무궁화가’⁴⁵⁾가 나왔다. 1907년과 1908년에 각각 『대한매일신보』와 『공립신보』에 게재되는 무궁화가 역시 ‘성자신손 무궁화가’이다.

아래는 ‘동해물과 애국가’가 나오기 전에 등장한 ‘무궁화가’ 특히 ‘성자신손 무궁화가’ 사료의 사례에서부터 1910년 이전의 ‘동해물과 애국가’의 양상을 사료로 목록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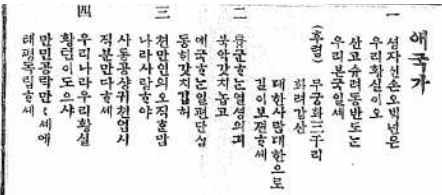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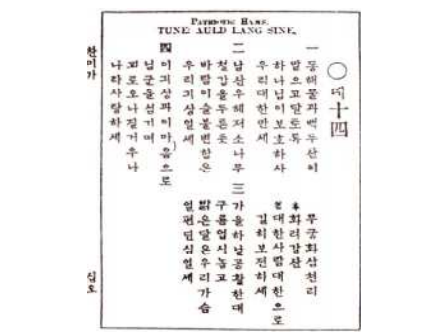
42) 여기에 제시하는 사료는 기존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 특히 노동은의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지었나」(1994)와 이명화의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1999) 및 김도훈의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2018) 등에서 다룬 바 있지만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43) 노동은은 앞의 논문(1994) 21쪽에서 독립신문의 용어대로 ‘무궁화 노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무궁화 후렴구가 있는 노래를 ‘무궁화 노래’라고 범칭하였고, 이명화도 앞의 논문(1999) 638쪽의 소항목 제목을 ‘2. 애국가의 연원-무궁화가’라고 씌으로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44) 김도훈은 앞의 논문 234쪽에서 1896년 11월 배재학당 출신 이익체의 〈협성회 무궁화가〉를 제시함으로써 무궁화가의 사료를 조금 더 앞당겼다. 이 노래는 ‘성자신손 무궁화가’와 가사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5) ‘성자신손 오백년은’으로 시작하며 ‘무궁화 삼천리~’ 후렴구를 가진 이 노래를 ‘성자신손 무궁화가’라고 지칭하겠다.

1910년 이전의 '동해물과 애국가' 사료의 사례

게재지	사료 이미지	한글로 옮김
『독립신문』 (1899.6.29.) 〈무궁화노리〉		무궁화노리는 一. 성조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슈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후렴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 세 二. 외국호는 열심외의 복악치치 높고 충군호는 일편단심 동회고치 높고 三. 천만인 오직호는 모름 나라스 랑 하야 스릉공상 귀천업시 직분만 다 하세 四. 우리나라 우리왕데 환원이 도 으샤 군민공락 만만세에 태평독립 하세
『대한매일신보』 (1907.10.30.) 〈無窮花歌〉		無窮花歌 聖子神孫五百年은 우리皇室이요 山高水麗東半島는 우리本國일세 無窮花三千里 華麗강산 大韓사람大韓으로 길이保全하세
『공립신보』 (1908.3.11.) 〈애국가〉		애국가 一 성자신손오백년은 우리황실이요 산고슈려동반도는 우리본국일세 (후렴) 무궁화三千里 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찬미가』 (1908, 재판) 〈제十四〉		一 동해물과백두산이 말고고달토록 하나님이보호하사 우리대한만세 후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二남산우헤저소나무 철갑을두른듯 바람이슬불변함은 우리고상일세 三가을하날공활한대 구름업시높고 맑은달은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四이괴상과이마음으로 님군을섬기며 피로오나질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보충친목 학회월보』 (1910.6.) 김인식작사 〈애국가〉		愛國歌 華麗江山東半島는 우리本國이요 眞實요한檀君子孫 우리國民일세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大韓으로 길이保全하세

게재지	사료 이미지	한글로 옮김
『신한민보』 (1910.9.21.) 〈국민가〉		▲국민가 (윤치호) 一 동해물과백두산이 말리고달토록 하느님이보호하사 우리대한만세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름대한으로 길히보전하세 二 남산우헤더소나무 철갑을둘은듯 바들이슬불변함은 우리고상일세 三 가을하늘공활흔데 구름업시높고 발근달은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四 이고상과이맘으로 민족을모으며 괴로오나즐거오나 나라사랑하세

‘동해물과 애국가’도 무궁화가에 속하나 지금까지 발견된 것을 보면 1908년에 발행한 윤치호가 역술 재판본 『찬미가』 十四가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사료이다. 여기에는 1899년 ‘성자신손 무궁화가’도 第十으로 함께 실려 있다. 물론 재판본이지만 초판본은 일반적으로 1907년쯤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성자신손 무궁화가’ 보다는 늦게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⁶⁾

‘무궁화가’는 모두 〈Auld Lang Syne〉 곡조로 불렸다. 『찬미가』 第十(성자신손~)과 第十四(동해물과~) 둘 다 〈Auld Lang Syne〉 곡조로 명시되어 있고 『보충친목학월보』 게재된 “화려강산 동반도”로 시작되는 김인식 작사 〈애국가〉 악보도 〈Auld Lang Syne〉 곡조이고 다른 곡조로 부른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1910년 이후 ‘동해물과 애국가’

(1) 1910년대 ‘동해물과 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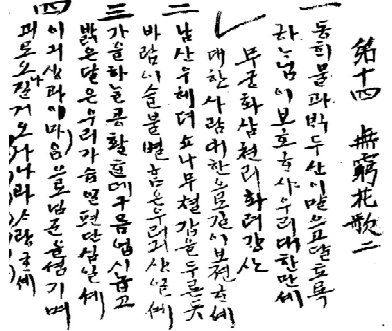
1910년대에 국내 신문에는 어떤 애국가도 실릴 수 없게 되었지만 국외의 민족학교 애국가창가집에는 수많은 애국가가 수록되었다. 그 중 ‘동해물과 애국가’는 〈無窮花歌二〉·〈國歌〉·〈愛國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국외에서 발간된 애국가창가집 중에 악보로 실린 ‘동해물과 애국가’를 보면, 1910년대에도 역시 〈Auld Lang Syne〉 곡조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를 살펴보면, ‘무궁화가’의 후렴구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본절의 다른 점도 『찬미가』 제14장의 ‘동해물과 애국가’와 고어체 표현만 다를 뿐 다른 점은 거의 없다. 다만 4절의 ‘님군을 섬기며’가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서 ‘民族을 모으며’로 다르다. 그러나 『최신창가집』을 토대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애국가창가』는 ‘민족을 모으며’로 쓰지 않고 ‘님군을 섬기며’로 썼다.

46) 또 김도훈은 앞의 논문 247~248쪽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한 『海潮新聞』 1908년 5월 26일자에 〈인국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자신손 무궁화가’ 게재 사료를 제시하였다.

1910년대 ‘동해물과 애국가’ 가사와 악보 사료

손승용 『창가집』 (1910년 추정) 〈無窮花歌二〉		第十四 無窮花歌 二 一 동해물과백두산이 말이고달토록 하느님이보우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二 남산우헤더쇼나무 철갑을두른 듯 바람이슬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 가을하늘공활흔데 구름업시높고 밝은달은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四 이기상과이마음으로 남군을섬기며 괴로우나즐거오나 나라사랑하세
광성학교 『최신창가집』 (1914) 〈國歌〉		一. 東海물과白頭山이 말이고달토록 한아님이보우하사 우리나라萬歲 (후렴) 無窮花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大韓으로 길이保全하세 二. 南山우헤저쇼나무 鐵甲을두른 듯 바람이슬不變함은 우리氣像일세 三. 가을하늘空濶한데 높고구름업시 밝은달은우리가삼 一片丹心일세 四. 이氣像과이마음으로 民族을모으며 괴로우나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호놀룰루 『애국가창가』 (1910) 〈愛國歌〉		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이고 달토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히 보전하세 二. 남산우헤 더쇼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 가을하늘 공활흔데 구름업시 높고 밝은달은 우리가삼 一뼘단심일세 四. 이기상과 이마음으로 남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2) 1919년~1945년까지 ‘동해물과 애국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동해물과 애국가’는 불린 정황은 있으나 가사나 악보가 있는 신문이나 잡지 게재 사료가 드물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료가 있다. 1919년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직후인 1919년 12월에 신한청년당에서 발행한 『신한청년』 창간호 내지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애국가가 실렸다.⁴⁷⁾

『신한청년』, 창간호, 1919.12.		愛國歌 東海물과白頭山이 말으고달토록 하나님이保祐하사 우리나라萬歲 無窮花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大韓으로 기리保全하세 南山우에저소나무 鐵甲을두른듯 바람이슬不變함은 우리氣象일세 가을하늘空濶한데 높고구름엷시 붉은달은우리가슴 一片丹心일세 이氣象과이맘으로 忠誠을다하야 괴로오나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	---	--

『신한청년』의 주필자 이광수가 “도산선생이 1919년에 ‘임금을 섬기며’ 가사 대신 ‘충성을 다하여’로 고쳤다”라고 한 것을 증거로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던 근거 자료이다.

이후 1920년대에 ‘동해물과 애국가’는 온전한 가사든, 악보든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920년대 ‘동해물과 애국가’가 대표적인 애국가로 되어 가는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애국가에 대한 신문기사에는 대부분 가사가 나오지 않지만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동해물과 애국가’ 가사라는 것을 알 수 있

1920년대 ‘동해물과 애국가’ 가사가 언급된 신문기사의 사례

기사날짜	신문이름	제목	내용 요약
1923.05.20.	동아일보	선도자(54)	필자 長白山인의 연재글(54회) 중에애국가에 경의를 표하여 일어섰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애 국가가 오백명의 힘이 있는 목으로 올었다...
1924.02.23.	동아일보	인성학교 진급식	상해의 인성소학교에서 진급식을 거행하였는데 식은 극히 성대하게 거행하여 새로운 기운을 많이 얻고 정각에 무궁화의 〈애국가〉로써 개회하여.
1925.10.21.	동아일보	조선국화 무궁화의 내력	〈대한제국애국가〉에 부속되어 생겼다고 하는 “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달토록 ”이라는 애국가의 후렴인 “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이라는 구절이 끼일 때에 비로서 근화 즉 ‘무궁화’라고 쓰기 시작한 듯 하다고.
1928.10.27.	조선일보	六十老人의 陰毒과 愛國歌 事件	평양 리봉훈……학생회에서 “ 동해물과 백두산이 ”라는 애국가를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제지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
1929.09.23.	中外日報	강서소년회창립 기념식	평남 강서 소년회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때 진행 도중 여흥으로 들어가서 無窮花 라는 노래를 부르던 중 하등 구체적 이유도 업시 금지시……

47) 『신한청년』 창간호에 실린 이 이미지는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54집으로 발행한 『신한청년』(2020)에 실린 이미지이다.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궁화가의 애국가’라는 기사에서 ‘동해물과 애국가’가 아닌 ‘무궁화가’를 부를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해물과 애국가’도 ‘무궁화가’에 속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애국가와 관련하여 가사가 언급되는 경우는 ‘동해물과 애국가’ 기사이다. 이 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는 아예 ‘동해물가(東海水歌)’를 불렀다거나(조선, 1930.1.4.), 동덕여고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교가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느님”을 삽입해 소개한 기사도 있다(동아일보, 1933.10.15.). 또 신문에 연재한 심훈의 〈상록수〉처럼 소설이라는 명목으로 가사 일부를 실어 놓은 경우도 있다.(동아, 1935.10.5.) 미주에 있는 음악가 안익태의 근황에 대해서 “동해물과 백두산곡”도 새로 고치어 작곡했다고” 하여 애국가를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소개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6.4.15.). 이는 ‘동해물과 애국가’의 가사의 일부만 언급해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애국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전도된 것이다. 특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후렴의 ‘무궁화’ ‘삼천리’ 등이 그 곡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1930년대 ‘동해물과 애국가’는 1935년 처음으로 안익태에 의해 작곡이 되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에서 1936년 발행한 『대한국애국가(Korean National Hymn)』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⁴⁸⁾ 합창으로 부를 수 있게 악보를 그렸는데, 여기에는 가사가 2절까지만 달려있다. 이 악보와 안익태가 곡을 짓게 된 동기를 적어 놓은 기록을 통해 적어도, 미국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1935년까지 ‘동해물과 애국가’를 〈Auld Lang Syne〉 곡조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 발행, 『대한국애국가(Korean National Hymn)』(1936) 표지와 악보

안익태가 작곡한 ‘동해물과 애국가’는 임시정부에서 인준된 바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 69호 1941년 2월 1일자 “愛國歌 新 曲譜 使用 許可” 문구를 찾을 수 있다.⁴⁹⁾ 내용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로

48) 이미지는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사이트에서 다운받았으며 소장처는 국립중앙박물관이다(소장품번호 안 388).

49) 大韓民國23年 2月 1日,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第69號, “北美 大韓人國民會 中央執行委員會로부터 安益泰(안익태)가 作한 愛國歌 新 曲譜의 使用 許可를 要求하였으므로 大韓民國 22年 12月 20日 國務會議에서 內務部로서 그의 使用을 許可하기로 議決하다.” 『신한민보』, 1941년 1월 16일자에도 임시정부령으로 인준한 곡조를 국민회 창립기념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부터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 신 곡보의 사용을 허가 요구하였기에 1940년 12월 20일 국무회의 내무부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준을 했어도 국가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⁵⁰⁾ 1940년 12월은 안익태가 유럽에 가 있었고, 최근 안익태 친일반민족행위 연구에 따르면 일본축전곡을 지휘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밝혀졌다.⁵¹⁾

그리고 1930년대가 지나 1940년대가 되어 해방 직전인 1943년 광복군 제2지대에서 발행한 『광복군가집』에 ‘동해물과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안익태 작곡의 악보이다.

『광복군가집』 (1943) 안익태 곡		(一)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후렴)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二)남산위에 저술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가을하날 공활한데 맑고구름없이 밝은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四)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	---	---

『광복군가집』에 실린 이 안익태의 〈애국가〉는 작사 작곡자들의 면모에서나 가사의 내용이나 곡조의 풍으로 볼 때, 『광복군가집』의 전체적인 성격과는 안 어울리는 곡이다. 광복군도 독립군도 아닌 안익태의 〈애국가〉(1935년 작곡), 즉 현재 우리가 국가로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넣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군가집 맨 처음에 〈국기가〉와 〈애국가〉를 나란히 넣어 격식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만든 한유한은 그동안 익히 불러왔던 〈Auld Lang Syne〉 곡조 대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한국인 창작곡이고 1941년 임시정부에서 불러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 1945년 8.15 해방 직후 ‘동해물과 애국가’

해방 직후의 〈애국가〉 관련 기사를 보면, ‘동해물과 애국가’를 부른 것은 분명하나 대부분은 〈Auld Lang Syne〉 곡조로 불렀던 것 같다. 그러나 해방된 시점에서 그동안 늘 불러왔던 애국가이지만 남의 나라 노래 곡조에 맞춰 부르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애국가를 기악곡으로 연주하게 되면 완전히 외국곡이 되어버리니 당연히 새로운 곡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서둘러 ‘애국가현상모집’을 크게 벌이기도 했으나 해방정국의 갈등 속에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안익태 작곡의 곡을 국가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남의 나라 노래이며 그것도 이별가였던 곡에 맞춰 부르는 ‘애국가’ 보다는 우

50) 이명화, 앞의 논문, 662~663쪽.

51) 이경분, 앞의 책, 117쪽~164쪽.

리 한국인이 작곡한 곡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애국가가 제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이거라도 쓰자는 견해가 많았다.

해방 직후 애국가 사료의 사례

임시정부 발행 「한국애국가」 (1945) 作詞 佚名 作曲 安益泰		一. 동해물과백두산이 말으고달토록 하나님이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후렴 무궁화 삼철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보전하세 二. 남산우에서솔나무 철갑을두른 듯 바람이슬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 가을하늘공활한데 높고구름없이 밝은달은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四. 이기상과이맘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신조선보』 (1945.11.16.) “애국가 위대한 작사 작곡을 待望(기다림)”		一,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萬世 後念, 無궁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기리 保存하세 二, 南山우의 저松柏 鐵甲을 두른 듯 바람서리 不變함은 우리 氣像일세 三, 가을하늘 空濶한데 높고 구름없네 밝은달은 우리가슴 一片丹心 일세 四, 氣像과 이맘으로 忠誠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자유신문』 (1945.11.21.) “장중활발하게 새 곡조로 부르자”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존하세
『중앙신문』 (1945.12.24.) “애국가는 이 곡조로 부릅시다.”		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후렴)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전하세 二. 남산우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 가을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업시 밝은달은 우리가슴 일편 단심일세

『임시중등 음악교본』 (1946) 안익태 곡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위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	---	---

1945년 임시정부 발행의 「한국애국가」나 1945년 『중앙신문』의 「애국가는 이 곡조로 부릅시다」란 기사에 실린 악보, 1946년 『임시중등교본』에 실린 악보 모두 안익태 곡이다. 『중앙신문』의 「애국가는 이 곡조로 부릅시다」란 기사에서는 안익태 곡조로 부르게 된 동기를 설명했는데 그때까지 안익태 곡조를 몰랐던 점이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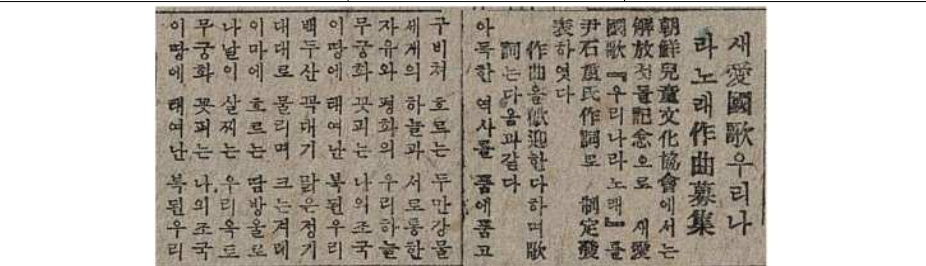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왜놈의 압박 밑에서도 마음속으로 부른 애국가의 곡조는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임시정부에서는 안익태씨가 미국 있을 때에 지은 새 곡조를 추천해야 기꺼이 발표하오니 널리 보급되도록 하십시오. 노래와 곡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를 ‘새곡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해방 직후까지도 애국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Auld Lang Syne〉의 곡조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지어 놓은 애국가가 있고 임시정부의 추천이라고 매우 신뢰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가사는 3절까지만 적어 놓았다. 또 곡을 제시하지 않고 가사만 게재해 놓은 『신조선보』의 「우리 애국가의 유래1- 위대한 작사, 작곡을 기다림」이라는 기사에서는 더 나아가 새로운 작사와 작곡을 기대하는 내용을 실었다.⁵²⁾

이렇게 해방직후 애국가 곡조를 그동안 불렀던 〈Auld Lang Syne〉 대신에 안익태 곡으로 대체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움직임도 확인된다. 『중앙신문』 1945년 12월 27일에는 「애국가 현상모집」 기사가 났다. 현상모집은 가사 작사와 작곡 모두 해당되었고, 당대의 가장 권위 있던 문학가들과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또 『동아일보』 1946년 2월 1일자에도 「애국가모집」에서 “새로운 애국가를 천하에 구한다”라고 하였고 『수산경제신문』 1946년 8월 8일자와 16일자에는 윤석중이 지은 〈우리나라 노래〉라는 새로운 애국가 가사에 곡을 붙일 작곡을 모집하는 기사도 나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익태 곡의 애국가가 당시에 임시적으로 통용되었고, 새로운 애국가를 작사, 작곡하려는 시도가 해방직후부터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52) 이 기사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독립 자유 국가가 나오면 당연히 국가도 새로 제정될 것인데”라고 시작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Auld Lang Syne〉 곡조건 안익태 곡조건 임시로 받아들인 듯하다.

1945년 해방직후 ‘애국가 현상모집’ 관련 기사의 사례

왼쪽 『동아일보』 (1946.1.2.) 애국가모집 오른쪽 『중앙신문』 1946.1.17. 애국가 가사 현상모집			▲작사내용=(가)애조를 피할 것. (나) 진보적 일 것 (다) 건설적이며 민족의 유구성일 것 ▲작곡=가사입선 결정 후 따로 공모함. ▲심사=○가사: 정지용 이병기 임화 김기림 박종화 김상용 박세영 양주동 조벽암 ○작곡: 박경호 채동선 계정식 박태준 안기영 김재훈 이영세 신막 박영근 이흥렬 최희남 박태현 이범준 김성태 김순남 박용구 안병소 한갑수 안성교 이진우 나운영
새 애국가 <우리나라 노래> 작곡 모집 『수산 경제신문』 (1946.8.8.)			

지금까지 IV장에서는 1890년대 ‘무궁화가’의 등장과 더불어 1907년 처음 ‘동해물과 애국가’가 게재된 사료
에서부터 1946년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안익태 곡조의 ‘동해물과 애국가’를 시대 순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
들 자료에 실린 ‘동해물과 애국가’를 현재 부르고 있는 가사와 비교해 보자면, 고어체를 현대어로 고친 것을
제외하고 ① 하나님 → 하느님 ② 우리대한 → 우리나라 ③ 바람이슬 → 바람서리⁵³⁾ ④ 임군을 섬기며 →
충성을 다하여 이 네 부분이 다르다.⁵⁴⁾

‘동해물과 애국가’의 가사 일부가 달라진 점과 관련해서는 작사자를 밝히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
나 이 논문에서는 작사자 논쟁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동해물과 애국가’가 처음에는 남의나라 곡조에 불렀다
가 안익태 곡조로 임시 대체하려 했던 것이 고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고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지켜온 이 애국가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 주목하였다.

53) ‘바람서리’는 제일 나중에 바뀐 부분인데, 이를 주장한 사람은 김일수 국기보양회회장이다. 「國旗普揚會長金一秀氏言及, 國
旗의 四野와 愛國歌等 文教當局의 過誤是正을 促求」(『평화일보』, 1948년 9월 19일자)라는 기사에 “애국가에 관한 범오를
누차 논하였거니와 1948년 7월 22일에 발행된 문교부 김정본 중등학교 음악교본 제1항에 애국가를 보면 제2절에 바람이슬
이란 것은 풍로요. ‘風露’란 말은 있어도 ‘風霜’란 말은 없다. 즉 이는 風霜을 겪으면서도 우리 기상은 씩씩하다는 것으로
바람서리가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이슬이 그대로 살리어 있는 것은 시정을 요하는 바이다.”라고 지적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54) ‘동해물과 애국가’의 가사 변천은 김도훈의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2018)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생략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애국가와 관련된 사료를 가지고 주제와 시대를 나누어서 애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크게는 1910년 일제강점을 기준으로 하여 2장에서는 이전의 양상을, 3장에서는 이후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별도로 ‘동해물과 애국가’만을 중심으로 다시 그 안에서 시기를 3.1운동을 기점으로 1919년 이전과 1919년 이후 그리고 1945년 해방 직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가 현재 부르는 곡은 ‘동해물과’로 시작하는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한 곡이지만 ‘애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애국가 운동’이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해방직후까지의 역사를 사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90년대부터 애국가는 수없이 많이 지어졌고 많은 곡조로 불렀던 나라사랑의 노래이다. 곡명이 ‘애국가’인 경우도 많았지만 곡명을 달리해서 〈애국〉·〈국가〉·〈독립가〉·〈국민가〉·〈한반도〉·〈정신가〉라고 했어도 그 가사의 내용이 애국가에 속하는 곡들이 많았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애국가 가사 짓기’는 계속되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애국가 부르기’가 크게 성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02년 대한제국에서는 〈대한제국애국가〉를 만들고 국가로 선포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강점기로 들어서자 모든 애국가가 짓기도 부르기도 금지되었고 모든 애국가와 관련된 발간물은 모두 압수되었다.

일제의 이런 애국가 금지와 탄압 속에서도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오히려 애국가를 더욱 많이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짓고 불려왔던 수많은 애국가를 창가집에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민중학교와 독립운동 조직과 단체에 보급해서 훨씬 더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애국가의 범주는 더욱 넓어져 ‘애국창가’로 발전하였다. 〈대한제국애국가〉도 제목과 가사일부만 바꾸어 애국창가집에 싣고 계속해서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애국가 변화의 시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1919년 3.1운동이 계기였다. 3.1운동 이후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생겨났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임시정부에서 치러진 각종 국가의식은 1900년대 일제강점 직전에 관례가 되었던 의식인 국기계양과 애국가 제창이 정례화 되었고 이는 곧 애국가의 통일, 즉 대표 애국가 부르기로 전환되었다. 이 대표적인 곡이 ‘동해물과 애국가’이다. 당시까지는 〈Auld Lang Syne〉 곡조에 맞춰 불렀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애국가를 짓거나 부르거나 가지고 있거나 모두 검속의 대상이고, 발각되면 해직, 체포, 구속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애국가는 일제의 저항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되어갔음을 말한다. 이 때 부른 노래 역시 ‘동해물과 애국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해물’ ‘백두산’ 등은 애국가를 대신한 이름으로 은밀하게 쓰였다.

이렇게 ‘동해물과 애국가’는 대표적 애국가로 자리 잡고 해방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졌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Auld Lang Syne〉 곡조가 남의 나라 민요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는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곡을 작곡한 시기는 1935년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서야 ‘새곡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부르게 되었고, 1946년 『임시중등음악교본』

에 실림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인식은 말 그대로 국가를 제정할 때까지 임시로 쓰자고 한 것이었는데, 작곡자가 유럽에서 1940년대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던 일도 모른 채 결국 오늘날까지 사실상 국가처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애국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890년대부터 수많은 애국가가 만들어지고 불려졌다. 그러한 애국가 가사에는 독립염원과 함께 유구한 역사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있다. 가사에 담긴 ‘삼천리’ ‘한반도’ ‘반만년’ ‘무궁화’ ‘태극기’ ‘대한독립’ 등은 한 작사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다른 애국가와 분리할 수 없지만 ‘동해물과 애국가’의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의 식민지배가 노골화될수록 상징적인 항일의 노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 때문에 현행 〈애국가〉의 가사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행적과 표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곡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애국가』(1902), (2020.10.15. 등록문화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 『대한제국애국가』(1902), 악보 이미지, (원주역사박물관 소장)
- 『最新唱歌集 附樂典』(광성학교, 1914.7.15. 등사판), 국가보훈처 영인본 (1996)
- 『애국가』(1916.5.13. 등사판. 독립기념관 소장)
- 『신한청년』, 창간호, 19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제54집』, 2020)
- 『광복군가집』(1943), (2011.8.24. 등록문화재, 한중수 소장)
-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평택 한국근현대음악관 소장)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사이트에서 검색한 1896~1946년까지 애국가 관련 이미지 자료.
- 김덕균, 「우리겨레의 항일가요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20, 한국음악사학회, 1998.
- 김도훈,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김보희, 「1910년대 국외 ‘애국가’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 - 하와이판 『애국가』(1916)를 중심으로」, 『동양학』 78, 단국대동양학연구원, 2019.
- 김보희, 「북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요 - 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한국국악학회, 2008.
- 김수현 · 이수정 엮음,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 잡지편』 1, 민속원, 2008.
- 김시덕, 「북간도 명동학교 막새기와의 꽃문양에 나타난 민족의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2014.

- 노동은,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역사비평』 5월호, 역사비평사, 1994.
- 노동은, 『향일음악 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
-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2019.
- 부산근대역사관 편, 『면구름 한형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부산근대역사관, 2006.
- 신용하, 「해제」, 『해외의 독립운동사료(XⅦ) 일본편 ④-最新唱歌集 附樂典』, 국가보훈처, 1996.
- 이경분, 『잃어버린시간 1938~1944』, 휴머니스트, 2007.
- 이명화,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10·11, 역사실학회, 1999.
- 임진택,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재, 1974.
- 장유정,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애국창가집, 『창가』(손봉호(孫鳳鎬), 1910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 이 논문은 2020년 12월 11일에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History of Korean National Anthem Lyrics and Singing Songs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Kim, Suhyu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national anthem has developed in terms of lyrics and songs based on musical materials. It investigates three different periods: 1st period is the national anthem before the 1910 Japanese occupation; 2nd for after 1910; and today's version of the national anthem.

While the 1890s in the 1st period was the decade busy for “writing the lyrics of the national anthem”, the 1900s was the time when “singing the national anthem” was considered an important national practice. A national anthem called, “The Great Han Empire Anthem” that was composed at that time. As many schools adopted national anthem singing practice being accompanied by Taegukgi hosting and shouting hurrah three times, it was widely sung across the entire nation. Howev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prohibited singing the national anthem while confiscating all the books containing the national anthem.

Despite such banning, more various patriot songbooks were published after 1910 in suppor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s a result, different types of patriot songs were sung until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an official national anthem to represent its authority in 1920s.

The national anthem beginning with the lyric of ‘donghaemulgwa’ that was first called as ‘Mugunghwasong’ was sung with other national anthem songs, but it finally became the most representative national anthem in 1919. This national anthem lyrics adopted the melody of <Auld Lang Syne> before An Ik-tae composed and introduced the national anthem, so-called, donghaemulgwa anthem,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on Aug 15th, 1945. Since then, this song has been officially playing as the national anthem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Key Words] National anthem, Writing lyrics National anthem, Singing National anthem, Mugunghwaga, historical materials, Anti-Japanese songs, Independence movement, Ahn Chang-ho, Ahn Ik-tae, <Auld Lang Syne>

*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